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년 통일·평화 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남북공동 세계유산 등재 기반구축을 위한 비무장지대  
민북마을 유산 가치 탐색  
-대성동 마을을 중심으로-**

2025. 2.

성종상·이제이·김서린·김보람



## 목차

---

01. 연구개요

02. 이론적 배경

03.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적 특성

04. 대성동 마을의 유산적 가치

05. 대성동 마을 세계유산 등재 방안

06. 결론

---

# 01 연구 개요

## 1.1 연구 배경

### •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시대적 요구

-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은 전면적인 문화교류 추진에 합의했으며,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학술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문화유산 분야의 교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 • 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본격화

- 2019년 유엔총회 기초연설과 2020년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DMZ의 국제평화지대 조성 및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의지가 천명되었다.
- 2020년 5월부터 2년간 총 18회에 걸친 한반도 DMZ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적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 정부, 경기도, 강원도 등 여러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 DMZ 민북마을의 유산적 가치 재조명

-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 분단의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역인 대성동 마을은 분단의 상징을 넘어 70년 이상의 역사가 축적된 생활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민북마을은 냉전의 공간이자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일반 농촌마을과는 차별화된 특수성을 지닌 문화경관이다.

###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대적 맥락

- 최근 세계유산 분야에서 분단과 갈등의 기억을 지닌 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2023년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갈등 관련 기억유산 등재 지침 채택은 DMZ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은 1.9km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의 상징적 대상이 될 수 있다.

## 1.2 연구 목적

- **민북마을(대성동 마을)의 문화유산적 특성 규명**
  - 분단과 평화, 전통과 현대, 일상과 비일상이 공존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특성 분석
  - 가시적 경관과 주민들의 기억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을 통한 고유 특성 도출
-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도출**
  - DMZ 민북마을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특징과 가치 도출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보전 기반 구축**
  - '한시적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로의 전환을 위한 보전 방안 도출
  -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기록
-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기반 조성**
  -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 대성동 마을을 매개로 한 남북 협력 방안 제시

## 1.3 연구 대상

민북마을은 민간인통제선 북쪽에 위치하며,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을 지칭하는 용어다. 현재는 1968년 이전에 존재했던 자립안정촌과 전략촌, 그리고 대성동 마을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촌과 신행민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정근식 외, 2020).

이들 민북마을은 한반도 분단의 결과로 형성된 DMZ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자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냉전과 분단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냉전경관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사례로서, 단순한 지역적 특성을 넘어 분단과 공존이라는 한반도의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는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지닌다(황성한 외, 2023).

민북마을은 조성 시기와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수복된 지역에 조성된 '자립안정촌'이다. 이 마을들은 민통선 이남의 농민들이 민북지역에서 출입농업 또는 가유숙을 하던 과정에서 군의 허가를 받아 입주 영농이 허용되며 집단적으로 형성된 정착지다(한모니까, 2020). 상대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적었으며,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작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

1968년부터 1979년까지 민간인 통제구역 북방지역에서는 개발과 대북 우위성 과시를 목표로 국가 주도의 '전략촌'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전략촌은 1968년 철원 대마리에 처음 조성된 재건촌과, 그 한계를 보완하여 철원 유곡리 및 파주 백연리에 건설된 통일촌으로 구분된다(정근식 외, 2020). 초기 재건촌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정착 환경이 불안정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통일촌은 기반 시설 확충과 경작권 보호 조치가 강화(박한솔, 2022)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 아래 조성되었다.

한편, 자립안정촌과 재건촌·통일촌의 발전 경로에서 벗어난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촌'으로도 불리는 대성동 마을은 DMZ 내 유일한 거주 마을이다. 또한, 2001년에 형성된 '실향민촌'인 해마루촌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마을들은 각기 다른 설립 배경과 목적을 가지며, 기존의 민북마을 유형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네 가지 유형의 민북마을 중에서도 비무장지대촌인 대성동 마을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마을은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군사적 환경 속에서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DMZ 내부라는 특수한 공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문화경관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북마을 중 연구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의 대성동 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비무장지대 민북마을의 유산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대성동 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성동 마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로 판단된다.

첫째, 대성동 마을은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 마을로, 그 형성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다. 1951년 민간인 소개 과정에서 피난민들이 대성동에 집중되었으며, 이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 요청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비무장지대 내 마을 유지 및 주민들의 거주·출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한모니까, 2023). 이러한 형성과정을 거친 대성동 마을은 북한의 기정동 마을과 함께 70년 이상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군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불과 1.9km 거리에 위치한 남북한의 두 마을은, 향후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대성동 마을은 민북마을 네 가지 유형(자립안정촌, 전략촌, 비무장지대촌, 실향민촌)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법적 지위를 지닌 비무장지대촌으로, DMZ 내 문화경관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마을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유엔군사령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적 법적 체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법적 특성은 대성동 마을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셋째, 대성동 마을은 분단과 평화, 군사적 긴장과 일상적 삶이 공존하는 복합적 문화경관

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는 단순한 접경지역 마을을 넘어, 한반도 분단의 특수한 맥락을 미시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공식 기록물들은 이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 대성동 마을에는 51세대, 138명(2024년 6월 30일 기준)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민북마을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성동 마을의 유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성동 마을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 민북마을의 유산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향후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2 대성동 마을 위성사진(출처: Google Map)

## 1.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 민북마을의 유산 가치를 탐색하고 남북공동 세계유산 등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문헌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진행하였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변화에 관한 문서와 DMZ 관련 정책 문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대성동 마을의 유산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변화와 관련 이론에 관한 학술논문 및 단행본
- 대성동 마을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사료(국가기록원 소장 공문서, 1953년~2024년 신문기사 등)
- DMZ 및 민북마을 관련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

- 현장조사

- 현장조사 일시: 2024년 11월 21일
- 조사내용: 대성동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유형 유산 관찰 및 기록
- 조사특성: 출입 제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오전 9시-오후 5시 20분) 내 집중 조사 실시

- 심층인터뷰

- 심층인터뷰 기간: 2024년 7월 19일~
- 평균 소요시간 및 인터뷰 장소: 각 인터뷰는 평균 9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산역 인근 카페나 참여자의 사업장에서 인터뷰 수행, 추가 질문은 전화 인터뷰 수행
- 인터뷰 대상: 마을 거주민, 이주민(대성동 주민의 자녀 세대), 마을 관계자
- 인터뷰 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 주요 질문 내용: 대성동 마을의 유·무형 유산 특성, 마을 공동체의 특징과 변화, 주민들의 생활상과 경험, 마을의 역사적 변천 과정

표 1 심층인터뷰 참여자

| No. | 구분 | 성별 | 면담일(대면)     | 출생연도 | 직업 | 거주기간 | 비고 |
|-----|----|----|-------------|------|----|------|----|
| A   | 주민 | 여  | 2024.07.19. | 1951 | 주부 | 50년  | -  |
| B   | 주민 | 남  | 2024.08.31. | 1969 | 농업 | 55년  | -  |
| C   | 주민 | 여  | 2024.09.11. | 1950 | 주부 | 52년  | -  |
| D   | 주민 | 여  | 2024.09.11. | 1946 | 주부 | 54년  | -  |

- 조사의 한계 및 보완방법

제한된 출입 여건과 주민 고령화로 인한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 이장 등 핵심 정보제공자를 통한 심층 인터뷰, 접촉 가능한 주민들에 대한 선별적 인터뷰, 주민 자녀들을 통한 간접적 정보 수집 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대성동 마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파악하고, 유·무형의 유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3 연구 방법 및 성과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며, 이를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남북분단과 접경지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민북마을에 관한 연구 또한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기존 연구들은 민북마을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양상을 조명하며, 특수한 환경에서 형성된 생태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왔다. 또한, 민북마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요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한모니까, 2020).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민북마을의 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마을을 대상으로 한 기초 실태조사와 특정 측면의 보전 방안 제시(황성한 외, 2023)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북마을이 지닌 포괄적인 유산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군사보호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연구 대상이 주로 군사분계선 중심이 아니라 민간인통제선이나 접경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노현균, 2020). 이러한 연구 경향은 민북마을을 유산적 관점에서 조명하기보다는 냉전적 분위기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볼 수 있다.

민북마을은 전쟁 이후 접경지역 황무지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지로, 서로 다른 요소들이 융합되며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 온 과정을 거친 경관이다. 이는 일련의 변화와 진화를 거쳐 형성된 문화경관으로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황성한 외, 2023)이며, 기존 연구들은 분단 상황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생활과 문화를 기록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민북마을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증거이자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박한솔 외(2020)는 ‘살아있는 유산’ 관점에서 철원군 이길리와 유곡리 등 두 개의 민북마을을 연구하여, 유형 유산, 무형 유산, 공동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민북마을의 유산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특히, 민북마을을 진화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식한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서준원 외(2021)는 DMZ 내 철원 민북마을 주민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일상사를 수집하고, 잭슨(Jackson)의 경관 연구 모델(주거지, 경관 문화, 거주 활동)을 적용하여 민북마을의 경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민북마을을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경험이 축적된 문화경관으로 해석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황성한 외(2023)는 민북마을을 분단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다루며, 그 공동체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북마을의 문화적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부각하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관점을 공유한다. 연구는 체계적인 보전 전략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민북마을

과 같은 분단문화 유산이 학문적 연구와 교육적 자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민북마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민북마을이자 최북단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접근성의 제약 등으로 인해 연구가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 전반을 다룬 연구에서 대성동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존재하지만, 대성동 마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는 10편 미만에 그친다.

대성동 마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역사·정치적 맥락, 주민 생활과 문화, 그리고 공간 및 건축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 • 역사·정치적 연구

- 김응섭(1989)은 판문점과 함께 대성동 마을이 남북 관계에서 가지는 분단의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 금보운(2024)은 1953~1963년 대성동 마을의 생활 개선 사업을 분석하며, 한국 정부와 미국 간 협력 및 갈등 양상을 조명하였다.

#### • 주민 생활과 문화 연구

- 경기문화재단(2014)은 주민 생애사를 중심으로 마을의 문화자원을 발굴하였다.
- 신나리(2023)는 여성 주민들의 생활 경험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임종업(2021)은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대성동 마을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 • 공간 및 건축 환경 연구

- 김유지 외(2015)는 공공 커뮤니티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김상민 외(2016)는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서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였다.
- 박채린(2022)는 대성동 마을 개발 사업과 주택의 건축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대성동 마을에 대한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들은 마을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학제 간 접근에도 불구하고 유산적 관점에서 대성동 마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간극을 메우고, 대성동 마을을 유산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DMZ 및 민북마을 연구

- 생태적, 역사적, 상징적 가치 인정
-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보전 필요성 강조
- 남북 협력, 국제사회 연대, 국내 공감대 형성 제안
- 민북마을을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식

#### 대성동 마을 연구

- 역사학, 정치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 마을의 형성과 발전 과정,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조명
- 한반도 분단의 상징으로서의 역할 논의
- 유산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부족

그림 4 선행연구 검토

## 02 이론적 배경

### 2.1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

최근 유산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4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구축한 60년간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대체하며, 유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 법은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유산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 가운데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중요성을 지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유산의 개념은 과거 유형 문화재나 역사적 건축물 중심에서 무형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유산 개념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으며, 1964년 「베니스 헌장」을 시작으로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1982년 「플로렌스 헌장」의 ‘역사 정원’ 개념, 1992년 ‘문화경관’ 개념의 도입 등을 통해 유산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졌다. 특히,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채택은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1년 발표된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문」은 도시 전체를 유산으로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유산 개념의 확장은 단순히 보호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도시의 역사적 경관, 지역의 문화적 관습, 그리고 일상적 삶의 모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무장지대 민북마을의 유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대성동 마을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지닌 공간을 분석할 때,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곳에 축적된 역사적 경험과 공동체의 삶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대적 유산 해석은 연구 및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보존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유산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문화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유산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경관적 접근법은 유산의 복합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유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확장된 유산 개념을 실제 연

구와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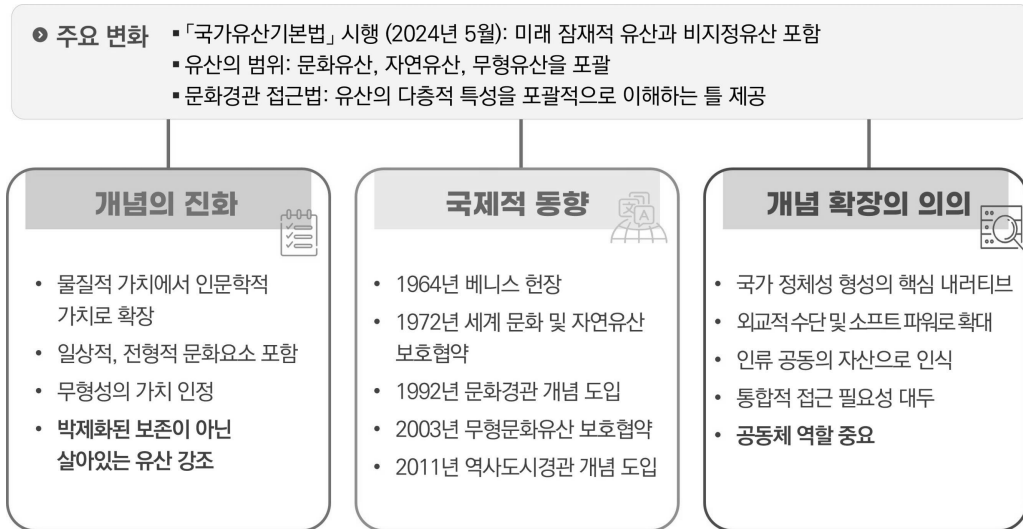


그림 5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념 확장의 의미

## 2.2 세계유산 등재 패러다임 변화

세계유산 등재 경향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뚜렷한 변화를 보이며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계유산 등재가 단일 유적지나 개별 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화경관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세계유산은 궁궐, 성당과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고고학적 유적지, 탁월한 자연경관 등 가시적이고 기념물적 성격이 강한 유산을 중심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의 통합적 가치를 중시하고, 장소성과 공동체의 생활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기억의 현장으로서 가지는 가치,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경관 유산의 등재 현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4년 7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121개의 문화경관이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1995년 이후 매년 평균 4.5건 이상의 문화경관이 새롭게 등재되면서 전체 세계유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문화경관의 유형도 점차 다양화되어, 전통적 농업경관, 종교적·역사적 산지와 성지, 원주민 문화유적, 역사도시, 산업문화경관, 정주지, 공원과 정원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유산 등재 패러다임의 변화는 유산 가치를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려는 국제사회의 인식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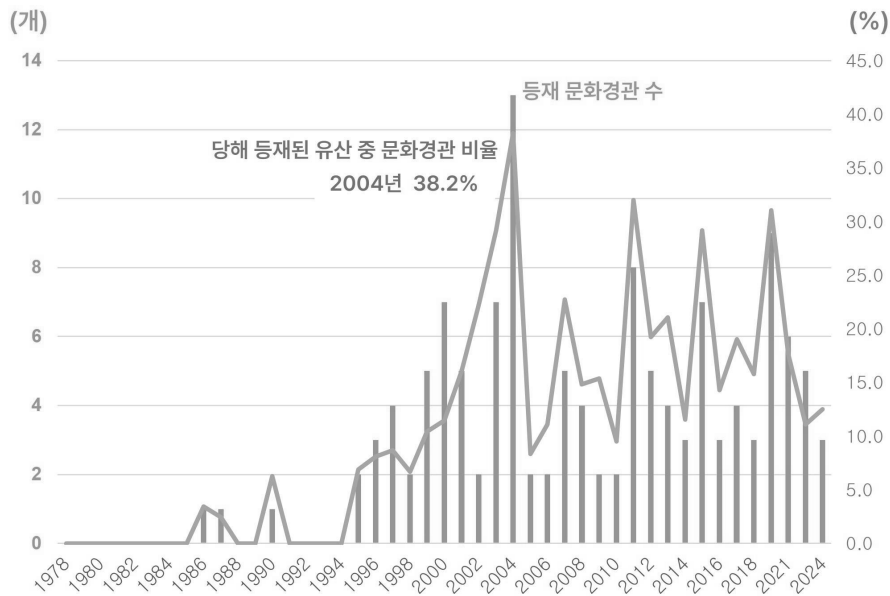


그림 6 문화경관 유형 등재 경향

## 2.3 문화경관 이해

문화경관 개념은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학문적 발전을 거듭하며 그 의미와 해석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19세기 프리드리히 라첼의 학술적 정의를 시작으로, 1920~30년대에는 칼 사우어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는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이 도입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경관을 문화적 텍스트로 해석하는 해석학적 접근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구성과 권력관계를 강조하는 비판적 관점이 중요한 연구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유네스코는 문화경관을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정의하며, 세계유산 협약 제1조에서는 이를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경관은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제약과 기회 속에서 인류 사회가 발전해 온 과정을 반영하며,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향력이 집약된 결과물로 이해된다.

특히, 유네스코의 문화경관 개념이 지리학, 특히 사우어의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네스코가 발간한 세계유산 보고서 제26권에서 사우어의 정의를 직접 인용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문화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유형은 ① 인간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경관, ②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③ 연상적 경관으로 구분된다.

표 2 세계유산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문화경관 유형

| 유형                                                                                 |                                          | 설명                                                                                   |
|------------------------------------------------------------------------------------|------------------------------------------|--------------------------------------------------------------------------------------|
|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창조된 경관<br>(Landscape Designed and created intentionally by people) |                                          | 심미적, 종교적, 또는 기타 문화적 이유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관                                            |
|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the 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 화석경관<br>(a Relict (or fossil) landscape) |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종료된 채로 주요 특징만 물리적 형태로 남아있는 경관                        |
|                                                                                    | 지속경관<br>(a Continuing landscape)         | 과거에 형성됐지만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여전히 활발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화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인 경관 |
| 연상적 문화경관 (the 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                                      |                                          | 물질적 측면보다는 자연 요소와 관련된 종교적, 예술적 또는 문화적 연관성을 지닌 경관                                      |

출처: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3

문화경관 개념의 의미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고,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전통 지식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관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 유산 보전의 관점을 기념물 중심에서 맥락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문화경관적 접근은 접경지역 연구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접경지역은 군사화된 환경과 분단의 역사적 경험이 중첩된 공간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다층적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북마을은 문화경관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민북마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다양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층위가 중첩된 복합적 공간이다. 특히, 전쟁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교차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문화경관 접근법은 이러한 민북마을의 다층적 의미와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의미, 공동체의 경험과 기억 등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경관 접근법은 민북마을의 유산적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분석 도구라 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존 세계유산과의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다. 2024년 9월 기준, 세계유산은 168개국에서 총 1,199개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문화유산이 933개, 복합유산이 39개 포함된다.

문화경관에 해당하는 유산 중 일부는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월경유산(transboundary heritage)<sup>1)</sup>으로 지정되었으며, 중복 계상되는 이들을 제외하면 현재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경관은 121개<sup>2)</sup>로 분류된다.

이 121개의 문화경관 중에서 선정된 비교 사례들은 각각 대성동 마을의 특정 측면과 연관성을 가지며, 동시에 문화경관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비교 대상들은 지리적 분포, 문화적 배경, 역사적 맥락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면서도,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대성동 마을의 특성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경관 유산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기준들은 대성동 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가능케 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선정 기준을 통해 선정된 사례들은 복합적인 문화경관 유산의 성격을 이해하고, 대성동 마을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① 공동체 문화가 반영된 주거 유산 또는 전통 마을 경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주거 유산 또는 마을 경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적 생활 방식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어, 현대화의 영향 속에서 전통의 지속성을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과 공동체 문화가 경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된다.
- ② 전통 마을의 형태이면서 전통적 농경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경관: 오랜 역사를 지닌 농경 방식이 현대적 기술 및 생활양식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경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적응과 변용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농촌 마을의 대표적 사례인 대성동 마을의 농경 문화 변천 과정을

1) 자선의 식민지(Colonies of Benevolence), 쿠로니아 모래톱(Curonian Spit), 에르츠 산맥(크루슈네호리 산맥) 광업 지역(Erzgebirge/Krušnohoří Mining Region), 페르토/노이지들러 호 문화 경관(Fertö / Neusiedlersee Cultural Landscape), 무스카우어 공원 / 무자코프스키 공원(Muskauer Park / Park Mużakowski), 피레네 산맥 - 몽 페르뒤 산(Pyrénées - Mont Perdu) 등이 월경유산에 해당된다.

2) 2009년에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드레스덴 엘베 밸리(Dresden Elbe Valley)'는 제외하였다.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③ 전통마을이 국경 지역 또는 분쟁지역에 위치하거나, 중대한 역사적·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문화경관: 이 유형의 경관은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문화경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대성동 마을이 위치한 DMZ 인근 지역의 특수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갈등과 화해의 역동성, 그리고 역사적·정치적 결정이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실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선정된 사례들의 구성요소는 대성동 마을의 독특한 공간 구조, 주민들의 생활 방식, 공동체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비교 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선정 기준에 따라 총 40개의 문화경관 유산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① 공동체 문화가 반영된 주거 유산 또는 전통 마을 문화경관, ② 전통 마을의 형태이면서 전통적 농경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문화경관, ③ 전통 마을이 국경 지역 또는 분쟁지역에 위치하거나, 중대한 역사적·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문화경관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례들이다. 선정된 유산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 선정된 문화경관 유산 사례

| 선택기준 | 유산명                                                                                      | 국가        | 등재연도 | 등재기준         |
|------|------------------------------------------------------------------------------------------|-----------|------|--------------|
| 1 ①  | 잘츠카머гут 지방의 할슈타트 - 다흐슈타인 문화 경관 (Hallstatt-Dachstein/Salzkammergut Cultural Landscape)    | 오스트리아     | 1997 | (iii)(iv)    |
| 2 ①  | 수쿠르 문화경관(Sukur Cultural Landscape)                                                       | 나이지리아     | 1999 | (iii)(v)(vi) |
| 3 ①  | 바하우 문화경관(Wachau Cultural Landscape)                                                      | 오스트리아     | 2000 | (ii)(iv)     |
| 4 ①  | 베가 제도(Vegaøyan - The Vega Archipelago)                                                   | 노르웨이      | 2004 | (v)          |
| 5 ①  | 케르나베 고고 유적(Kernavė Archaeological Site (Cultural Reserve of Kernavė))                    | 리투아니아     | 2004 | (iii)(iv)    |
| 6 ①  | 코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Koutammakou, the Land of the Batammariba)                                 | 토고        | 2004 | (v)(vi)      |
| 7 ①  | 콘소 문화경관(Konso Cultural Landscape)                                                        | 에티오피아     | 2006 | (iii)(v)     |
| 8 ①  | 북시리아의 고대 마을(Ancient Villages of Northern Syria)                                          | 시리아       | 2011 | (iii)(iv)(v) |
| 9 ①  | 바사리 지역 :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Bassari Country: Bassari, Fula and Bedik Cultural Landscapes) | 세네갈       | 2012 | (iii)(v)(vi) |
| 10 ① | 메이만드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Maymand)                                                | 이란        | 2015 | (v)          |
| 11 ① | 코마니 문화경관(Khomani Cultural Landscape)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7 | (v)(vi)      |
| 12 ① | 알 아사 오아시스 진화하는 문화경관(Al-Ahsa Oasis, an Evolving Cultural Landscape)                       | 사우디아라비아   | 2018 | (iii)(iv)(v) |

| 선정기준 | 유산명                                                                                                                                                  | 국가         | 등재연도 | 등재기준            |
|------|------------------------------------------------------------------------------------------------------------------------------------------------------|------------|------|-----------------|
| 13   | ① 피마치오윈 아키(Pimachiowin Aki)                                                                                                                          | 캐나다        | 2018 | (iii)(vi)(ix)   |
| 14   | ①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anat)                                                                                           | 이란         | 2021 | (iii)(v)        |
| 15   | ①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Portovenere, Cinque Terre, and the Islands (Palmaria, Tino and Tinetto))                                                         | 이탈리아       | 1997 | (ii)(iv)(v)     |
| 16   | ① 페르토/노이쉴러 호 문화 경관(Fertő / Neusiedlersee Cultural Landscape)                                                                                         | 오스트리아, 헝가리 | 2001 | (v)             |
| 17   | ② 코르딜라라스의 계단식 논(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 필리핀        | 1995 | (iii)(iv)(v)    |
| 18   | ② 비날레스 계곡(Viñales Valley)                                                                                                                            | 쿠바         | 1999 | (iv)            |
| 19   | ② 올란드 남부 농업 경관(Agricultural Landscape of Southern Öland)                                                                                             | 스웨덴        | 2000 | (iv)(v)         |
| 20   | ② 알투 도루 와인 산지(Alto Douro Wine Region)                                                                                                                | 포르투갈       | 2001 | (iii)(iv)(v)    |
| 21   | ② 토카이 와인 역사 문화 경관(Tokaj Wine Region Historic Cultural Landscape)                                                                                     | 헝가리        | 2002 | (iii)(v)        |
| 22   | ② 발 도르체(Val d'Orcia)                                                                                                                                 | 이탈리아       | 2004 | (iv)(vi)        |
| 23   | ②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 경관(Landscape of the Pico Island Vineyard Culture)                                                                                     | 포르투갈       | 2004 | (iii)(v)        |
| 24   | ② 용살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 시설(Agave Landscape and Ancient Industrial Facilities of Tequila)                                                              | 멕시코        | 2006 | (ii)(iv)(v)(vi) |
| 25   | ②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Lavaux, Vineyard Terraces)                                                                                                             | 스위스        | 2007 | (iii)(iv)(v)    |
| 26   | ② 코스와 세벤의 중세 농경목축 문화 경관(The Causses and the Cévennes, Mediterranean agro-pastoral Cultural Landscape)                                                | 프랑스        | 2011 | (iii)(v)        |
| 27   | ②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Coffee Cultural Landscape of Colombia)                                                                                                | 콜롬비아       | 2011 | (v)(vi)         |
| 28   | ②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the Serra de Tramuntana)                                                                                      | 스페인        | 2011 | (ii)(iv)(v)     |
| 29   | ② 발리의 문화경관 :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의 표현으로서의 수박 체계 (Cultural Landscape of Bali Province: the Subak System as a Manifestation of the Tri Hita Karana Philosophy) | 인도네시아      | 2012 | (iii)(v)(vi)    |
| 30   | ② 홍하하니족(紅哈尼族)의 다랑논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 중국         | 2013 | (iii)(v)        |
| 31   | ②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 랑게-로에로와 몬페라토(Vineyard Landscape of Piedmont: Langhe-Roero and Monferrato)                                                           | 이탈리아       | 2014 | (iii)(v)        |
| 32   | ② 샹파뉴 언덕, 샹페인 하우스와 저장고(Champagne Hillsides, Houses and Cellars)                                                                                      | 프랑스        | 2015 | (iii)(iv)(vi)   |
| 33   | ② 클리마, 부르고뉴의 테루아(The Climats, terroirs of Burgundy)                                                                                                  | 프랑스        | 2015 | (iii)(v)        |
| 34   | ②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데네의 프로세코 언덕(Le Colline del Prosecco di Conegliano e Valdobbiadene)                                                                      | 이탈리아       | 2019 | (v)             |
| 35   | ② 팔레스타인 :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땅 - 예루살렘 남부, 베타르의 문화                                                                                                            | 팔레스타인      | 2014 | (iv)(v)         |

| 선정기준 | 유산명                                                                                          | 국가            | 등재연도 | 등재기준             |
|------|----------------------------------------------------------------------------------------------|---------------|------|------------------|
|      | ③ 경관(Palestine: Land of Olives and Vines - Cultural Landscape of Southern Jerusalem, Battir) |               |      |                  |
| 36   | ③ 쿠로니아 모래톱(Curonian Spit)                                                                    | 리투아니아,<br>러시아 | 2000 | (v)              |
| 37   | ③ 밤 지역 문화경관(Bam and its Cultural Landscape)                                                  | 이란            | 2004 | (ii)(iii)(iv)(v) |
| 38   | ③ 향료 교역로 - 네게브 지역의 사막 도시(Incense Route - Desert Cities in the Negev)                         | 이스라엘          | 2005 | (iii)(v)         |
| 39   | ③ 디야르바키르 요새 및 헤브셀 정원 문화경관(Diyarbakir Fortress and Hevsel Gardens Cultural Landscape)         | 터키            | 2015 | (iv)             |
| 40   | ③ 에르츠 산맥(크루슈네호리 산맥) 광업 지역(Erzgebirge/Krušnohoří Mining Region)                               | 체코, 독일        | 2019 | (ii)(iii)(iv)    |

주: 선정기준 ① 공동체 문화가 반영된 전통 마을 문화경관, ② 전통적 농경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문화경관, ③ 국경 지역 또는 분쟁지역에 위치하거나, 중대한 역사적·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문화경관

앞에서 선정된 40개의 사례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탑재된 공식 문서 등을 참고하여 상세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산의 문화경관적 특징과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구성요소는 크게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로 구분<sup>3)</sup>하였다.

각 사례의 문화경관 특징을 정리할 때는 해당 유산이 ‘문화경관’으로 지정된 핵심 이유가 되는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잘츠카머구트 지방의 할슈타트 - 다흐슈타인 문화경관(Hallstatt-Dachstein / Salzkammergut Cultural Landscape)’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문화경관 지정의 핵심 이유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지속성: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소금 채굴 활동이 지형과 경관을 형성해 온 과정
- 생산 활동과 정주 패턴의 연관성: 염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사회구조가 마을 배치와 건축에 반영
- 자연환경의 제약과 인간의 적응: 험준한 산악 지형에 적응하여 발달한 건축 양식과 생활 방식
- 문화적 전통의 연속성: 수천 년간 지속된 소금 생산 기술과 관련 문화적 관습의 유지

3) 촌락의 공간 구성과 경관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시적·유형적인 것과 비가시적·무형적인 것으로 나누어보는 입장(‘유형과 무형’의 관점), 지역과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바라보는 시각(‘지역과 사회’의 관점),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생활의 시각에서 보는 입장(‘경제와 생활’의 관점) 등이 있다(전종한, 2017b).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형과 무형’의 관점을 이용하여 대성동 마을의 경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첫째, 문화경관의 물리적 실체와 그에 내재된 비물리적 가치를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어, 대성동 마을의 복합적인 문화경관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둘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이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어, 이 관점이 세계유산의 가치 평가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한다. 셋째, 대성동 마을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무형의 문화적 의미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할슈타트-다흐슈타인 지역이 단순한 역사적 장소나 자연 경관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문화경관’으로 인정받게 된 핵심 요인들이다. 이 유산의 물리적 요소로는 “빙하지형, 할슈타트 마을, 동굴, 고산 농업 경관” 등이, 비물리적 요소로는 “소금채굴방식, 언어 및 구전 전통, 종교의식” 등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소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경관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40개 사례 각각에 대해 문화경관 특징, 물리적 요소, 비물리적 요소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경관 유산의 구성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4 사례별 문화경관적 특징과 물리적 및 비물리적 요소

| 유산명                               | 문화경관 특징                                                           | 물리적 요소                                                    | 비물리적 요소                                            |
|-----------------------------------|-------------------------------------------------------------------|-----------------------------------------------------------|----------------------------------------------------|
| 1<br>잘츠카머구트 지방의 할슈타트 - 다흐슈타인 문화경관 |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소금 채굴 방식의 연속성, 영업 공동체 사회구조를 반영한 마을 배치와 건축              | 빙하지형, 할슈타트 마을, 동굴, 고산 농업 경관 등                             | 소금채굴방식, 언어 및 구전 전통, 종교의식 등                         |
| 2<br>수쿠르 문화경관                     | ‘히디(Hidi)’시스템으로 알려진 토지 관리 및 경작 방식, 촌장(Hidi)의 궁전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마을 구조 | 히디의 궁전, 포장된 길, 마을의 원형 진흙집, 우물, 전통묘지 등                     | 묘지-철제용광로-정착지 간 관계, 철 생산과 관련된 의식 등                  |
| 3<br>바하우 문화경관                     | 역사적 연속성과 지리적 다양성,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인간 활동의 흔적                      | 도나우강, 산림, 초지, 포도밭 테라스, 마을, 건축물, 역사적 유적지와 성채 등             | 전승되는 전통적인 건축 보존기술, 문학 작품 배경, 18- 19c 여행기와 고서의 참조 등 |
| 4<br>베가 제도                        | 전통 어업 마을, 창고, 등대 등이 만드는 특징적 경관<br>‘베가 모델’이라 불리는 고유의 토지 관리 시스템     | 수많은 섬,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 여촌마을, 목초지, 건축 및 구조물 등                 | 어업과 농업을 병행한 경제활동, 에이더 오리 깃털 수확 전통, 전통 기술 등         |
| 5<br>케르나베 고고 유적                   | 1만 년 이상의 인간 정착 역사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                                   | 5개의 언덕 요새, 비요새화된 정착지, 중세 도시 유적, 매장 유적지 등                  | 케르나베 마을 문화, 이교도와 기독교 장례 전통, 축제 및 행사 등              |
| 6<br>코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               |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진화해온 ‘살아있는 유산’ 바타마리바(Batammariba) 문화                | 타쿠엔타와 타마베 전통 주거 지역, 산과 언덕, 계단식 농경지 등                      | 바타마리바 언어, 이야기, 노래, 장례의식, 전통축제 등                    |
| 7<br>콘소 문화경관                      | 자연환경과 인간 정주지가 조화를 이룬 유기적 마을 배치, 극단적 건조 환경에 대한 창의적 적응              | 성곽마을, 문화공간(Mora), 무덤, 목조상, 돌기둥(Daga-Dir uma, Daga-Hela) 등 | 강한 사회적 결속과 협력, 종교 의식과 신념, 전통 지식과 기술 등              |
| 8<br>북시리아의 고대 마을                  | 석회암 지형과 인간의 독창적 공생 관계, 종교와 교역이 경관 형성에 영향                          | 석회암 지형, 건축물 및 주거지, 고대 농업 지역, 수리 시설 등                      | 종교의식, 축제, 음악과 춤, 언어와 문학 등                          |
| 9<br>바사리 지역: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 세 민족 그룹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생활 방식의 지속성, 전통적 마을 구조                        | 전통 건축양식의 가옥, 마을 중심의 공공 공간, 돌                              | 의례와 축제, 언어, 구전 이야기, 지도자와                           |

| 유산명 |                   | 문화경관 특징                                                     | 물리적 요소                                                | 비물리적 요소                                                  |
|-----|-------------------|-------------------------------------------------------------|-------------------------------------------------------|----------------------------------------------------------|
|     |                   | 와 방어적 건축 양식                                                 | 조형물, 수공예품 등                                           | 권위자의 역할 등                                                |
| 10  | 메이만드의 문화경관        | 독특한 주거 형태(키치(Kiche) 주거지), 반유목적 생활 방식:계절에 따른 거주지 이동          | 마을(Troglodyte Village), 동굴주거지, 농업 시설, 공동체시설 등         | 전통적인 유목 생활 방식, 수공예(대장간, 가죽 제품, 직조 등) 기술 등                |
| 11  | 코마니 문화경관          | 칼라하리 사막의 극한 조건에서 수천 년 간 지속된 전통적 생활 방식                       | 강, 사구 등의 자연경관, 무덤, 건축물(Bushman shelters) 고고학적 유적지 등   | 이야기, 전설, 춤, 노래, 신앙, 언어유산, 사냥과 채집 생활 방식 등                 |
| 12  | 알 아사 오아시스         | 신석기 시대부터 진화해온 '살아있는 유산', 창의적 오아시스 농업 전통                     | 산, 샘, 동굴, 야자수 숲, 농업경관, 도시기념물과 시장 등                    | 가족 단위 농업공동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음식 문화, 노동요 및 의상 등               |
| 13  | 피마치오원 아키          | 아니쉬나베 부족의 '지가나웬다망 기다 키미난(땅지키기)' 전통에 기반한 문화적 연속성             | 북부 삼림지대와 습지, 노출된 암반, 수많은 호수, 거주지, 오두막 등의 문화적 구조물 및 장소 | 아니쉬나베 부족의 전통 지식과 문화, 이야기와 노래, 신앙, 생물 다양성 등               |
| 14  | 하우라만/우라마나트 문화경관   | 반유목 목축농 생활 방식의 연속성, 풍부한 고고학적 유적을 통해 드러나는 오랜 문화적 진화의 증거      | 12개 마을 및 정착지, 계단식 논, 돌 건축물, 고고학적 유적 등                 | 12개 마을의 반유목 생활 방식, 하바르 생활, 농업 및 천문 현상과 연관된 전통의식, 음악과 시 등 |
| 15  |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 |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다섯 마을과 섬들의 독특한 지리적 경관, 전통적 마을 구조                | 해안 지역의 절벽과 섬, 정착지, 종교적·군사적 건축물 등                      | 지속적인 인간 정착 역사를 포함한 문화적·역사적 가치, 법률 및 규정 등                 |
| 16  | 페르퇴/노이지들러 호 문화 경관 | 호수와 습지 환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생태계 관리 능력,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생활 방식의 지속성 | 호수, 갈대밭, 호수 주변 마을들, 궁전과 정원, 방어용 성벽과 탑, 역사적 도로(엠버로드) 등 | 음악 역사, 세체니 가문의 정치적·문화적 유산, 엠버로드를 통한 오랜 교역 역사 등           |
| 17  | 코르달레라스의 계단식 논     | 가파른 산악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계단식 논, 세대를 거쳐 전승된 농업 기술과 지식              | 자연경관, 돌담/흙담으로 이루어진 계단식 논, 전통 가옥과 마을, 농부들의 가옥과 알랑 등    | 전통농업기술, 전통지식, 농사와 관련된 문화적 축제와 의례, 공동체조직 등                |
| 18  | 비날레스 계곡           | 원주민, 스페인 정복자, 아프리카 노예 후손들의 문화적 융합                           | 석회암 언덕(mogotes)과 동굴, 담배 재배 평원, 토착 식물종, 서부철도유적 등       | 전통적인 담뱃재배 기술, 농부들의 음악 전통, 전통 공예 등                        |
| 19  | 월란드 남부 농업 경관      | 중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전통적 농지 분할 시스템과 농업 마을 구조                       | 석회암 평원, 선형 마을들, 요새유적, 게티쉬(Geatisch) 농가, 풍차 등          | 농업 및 목축 전통, 중세 시대의 토지 분배 체계 등                            |
| 20  | 알투 도루 와인 산지       | 전통적인 와이너리와 농가(킨타)를 중심으로 한 포트 와인 생산 문화                       | 가파른 언덕과 계곡, 농업 경관, 건축물, 중세 기원의                        | 포도 재배와인 생산 기술, 농업 관련 축제,                                 |

| 유산명 |                         | 문화경관 특징                                                                 | 물리적 요소                                           | 비물리적 요소                                              |
|-----|-------------------------|-------------------------------------------------------------------------|--------------------------------------------------|------------------------------------------------------|
|     |                         |                                                                         | 마을들 등                                            | 지역 공동체, 민간전승 설화 등                                    |
| 21  | 토케이 와인 역사 문화 경관         | 수백 년간 이어진 와인 생산 전통이 만들어진 문화적 연속성의 물리적 증거                                | 토케이 산(Rokaj Hill), 포도밭, 와인 저장고 등 역사적 건축물 등       | 아슈(Aszú) 와인 제법, 와인생산체계, 지역 축제, 이민자 공동체 등             |
| 22  | 발 도르차                   | 성채, 마을, 농장 등 전통적 건축 양식과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적 도시 계획이 반영된 마을 구조                   | 평원, 삼나무 가로수길, 농업경관, 언덕 마을, 르네상스시대 건축물 등          | 메짜드리아(소작) 제도와 관련된 농업 관행, 종교적 전통, 예술적 영감, 관리체계 등      |
| 23  |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 경관         | 화산 지형에 적응한 포도 재배 방식, 포도밭 보호하는 '무르타' 전통 건조 돌담                            | 화산암지형, 포도밭, 돌담(Currais), 전통 가옥 및 건축물 등           | 포도 재배 및 와인 생산 전통, 지역축제, 협동조합 등의 공동체 등                |
| 24  |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 생산 시설 | 용설란 재배와 테킬라 생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과 경제 구조                             | 푸른 용설란 농장 등의 농업경관, 마을, 산업시설, 건축물, 고고학 유적 등       | 전통 기술과 지식, 테킬라 생산 관리체계, 테킬라 관련 문화 콘텐츠 등              |
| 25  |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             | 험준한 경사지를 활용하여 발전시킨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의 지속성                                    | 농업경관, 중세 수도원과 건축물, 마을 등                          | 포도 재배와 관련된 전통지식과 기술, 축제, 공동체 의식, 지역 사회의 참여 등         |
| 26  | 코스와 세벤의 중세 농경목축 문화 경관   | 지중해 전통적 농업-목축 활동의 전통, 농가마을·밭·이동 목축로(drailles)-공동 방목지가 어우러진 유기적 토지 이용 패턴 | 농업 및 목축경관, 건축물, 고산지대 도로망(Drailles) 등             | 아그로-목축 시스템, 공동체 기반 자원 관리, 문화적 및 역사적 기록 등             |
| 27  |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 콜롬비아 커피 재배 전통과 커피 농장(판카)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특한 농촌 정주경관                          | 커피 농장 및 경작지, 수확 및 처리 시설, 도시와 마을 등                | 수작업 위주의 커피 재배 및 가공 방식, 커피 문화, 전통 행사, 협동조합 및 사회적 연대 등 |
| 28  |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          | 독특한 계단식 경작 경관과 정교한 수자원 관리                                               | 수문학적 경관, 돌 구조물, 도시와 마을, 해안방어시설 등                 | 전통 지식과 기술, 종교적 아이디어와 믿음, 예술적 표현, 구전전통 등              |
| 29  | 발리의 문화경관                | 수박(Subak)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농업 문화와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 철학              | 수박(Subak) 관개 시스템, 수변 사원, 계단식 논, 화산과 분화구 호수, 마을 등 | Tri Hita Karana 철학, 음악전통, 4개 언어, 의례와 축제 등            |
| 30  | 홍허하니족의 다랑논 문화경관         | 82개의 전통 마을과 '버섯 집'형태의 독특한 가옥이 다랑논과 어우러진 문화적 경관                          | 광활한 계단식 논, 숲 등의 자연경관, 전통마을, 건축물 등                | 사회-경제-종교 시스템(人神合一), 전통적인 마을 관리 체, 마을규칙 등             |
| 31  |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니차 몬페라토 등 중세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포도밭 경관                          | 완만한 언덕의 포도밭, 토착 포도종, 포도주 양조시설, 마을 등              | 포도 재배 및 와인 생산 전통, 전문지식, 와인관리시스템, 와인 관련 문화 등          |

| 유산명 |                         | 문화경관 특징                                                                        | 물리적 요소                                                          | 비물리적 요소                                              |
|-----|-------------------------|--------------------------------------------------------------------------------|-----------------------------------------------------------------|------------------------------------------------------|
| 32  | 상파뉴 언덕, 샴페인 하우스와 저장고    | 포도 재배에 최적화된 언덕과 초크(Chalk) 지반의 포도밭 경관                                           | 석화암지층, 계단식 포도밭, 생산시설, 건축물, 마을, 교통인프라 등                          | 샴페인 생산 기술, 사회-경제적 구조, 관리 시스템, 샴페인의 상징적 의미 등          |
| 33  | 클리마, 부르그뉴의 테루아          | 점토-석화암 토양이 만든 독특한 테루아(terroirs), 와인의 품질과 맛을 결정짓는 미세 지형                         | 1천개 이상의 클리마, 경계구조물, 모자이크경관, 마을, 건축물 등                           | 전통농업기술, 와인 거래 네트워크, 농업공동체, 와인 관련 행사 등                |
| 34  |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테네의 프로세코 언덕  | 포도밭, 숲, 작은 마을, 농지가 어우러진 경관 조화, 수세대에 걸친 주민들의 지속 경관 관리와 재배 기술의 계승                | 호그백(hogback) 지형, 계단식 포도밭(ciglion) - 삼림지-정착지의 모자이크 경관, 마을, 건축물 등 | 전통농업기술, 수자원 및 삼림관리지식, 와인 생산기술, 지역 주민들의 유산 관리·보호 활동 등 |
| 35  | 팔레스타인: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땅     | 분단, 갈등 속에서도 지속된 농업 관행, 정치적 경계를 넘어 이어지는 계단식 논과 관개 시스템이 상징하는 문화적 연속성             | 계단식 농경지, 건조석축, 농업용 감시탑, 전통 보행로, 정착지 유적(khirab) 등                | 전통농업기술과 지식, 공동체 협력과 연대, 올리브유 생산 전통 등                 |
| 36  | 쿠로니아 모래톱                | 어촌 마을, 전통 가옥, 인공 해안사구, 재조림 지역이 어우러진 유기적 문화-자연 네트워크                             | 지형 및 자연경관, 어부마을, 단층 가옥들, 건축물, 고대 어촌 유적지, 기념물(Krikštai) 등        | 어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 생활 방식, 리투아니아와 러시아의 지속적인 협력, 장례 문화  |
| 37  | 밤 지역 문화경관               | 고대 도시와 사막 농업 지역의 공존, 지진 피해와 복구 노력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문화유산 보존 현장                        | 방어 시설, 건축물, 마을, 종교시설, 농업경관 및 수자원 관리 시설 등                        |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사, 건축물과 면직물 생산 전통, 카나트 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회 조직 등 |
| 38  | 향료 교역로 - 네게브 지역의 사막 도시  | 도시, 요새, 카라반사라이(Caravanserai), 농업 시스템이 어우러진 유기적 무역-생활 네트워크                      | 4개의 사막도시, 요새와 방어 시설, 무역 관련 시설, 도로시설, 농업목축경관 및 시설, 벽화 등          | 향신료 무역 역사, 나바테아인들의 생활 양식, 전통 기술 및 지식, 향신료 무역 네트워크 등  |
| 39  | 디아르바키르 요새 및 헤브셀 정원 문화경관 |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전통적 도시 방어와 농업 활동이 만들어낸 복합적 경관                                 | 디아르바키르 성벽과 탑들, 아미다 언덕, 궁전 유적, 정원, 하천경관 등                        | 농업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다양한 문명과 시대의 건축 기술, 전설 등             |
| 40  | 에르츠 산맥(크루슈네호리 산맥) 광업 지역 | 800년간 지속된 광업 활동이 형성한 산업-자연 복합 환경, 독일과 체코 국경을 아우르는 초국경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광역 문화경관 | 광업 관련 시설 및 구조물, 광산마을, 교통 인프라, 학교, 왕립조폐소 등                       | 광업 기술 및 지식, 광업 관리 및 행정 시스템, 광산 노동자 사회조직, 문헌기록 등      |

40개 유산 사례에서 문화경관의 다층적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trop(2000)의 통합적 경관 분석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문화경관 사례들의 구성요소를 크게 형태적-구조적 요소, 기능적-활동적 요소, 상징적-문화적 요소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분석 틀을 기반으로 40개 유산 사례에서 식별된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더욱 세밀한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형태적-구조적 요소는 9

개 범주(Ag, Ar, B, Ft, G, I, N, T, W)로, 기능적-활동적 요소는 3개(S, KS, M)로, 상징적-문화적 요소는 5개(L, CT, RS, SON, TAE)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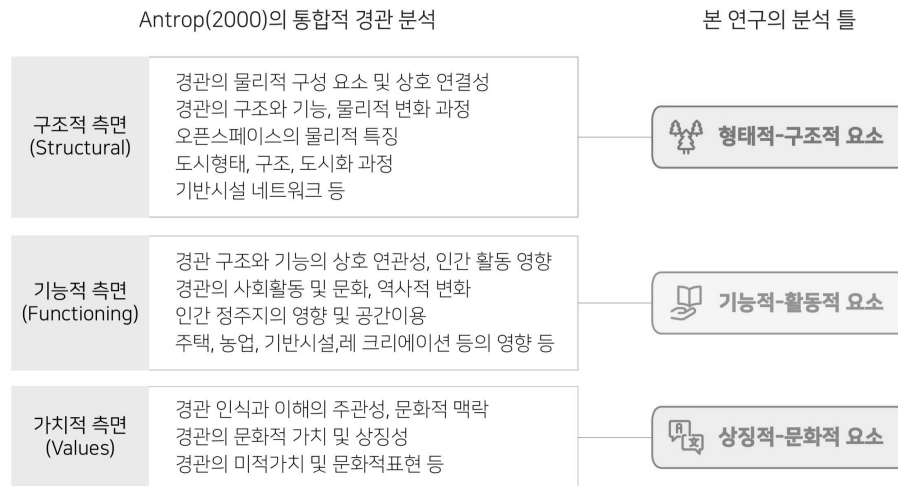


그림 7 Antrop(2000)의 통합적 경관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차용한 분석 틀

형태적-구조적 요소는 농업 경관(Ag), 고고학적 유적(Ar), 건축물·구조물(B), 성곽·방어 구조물(Ft), 정원과 공원(G), 산업 유산(I), 자연경관과 지형(N), 도시와 마을(T), 수계 시스템(W) 등으로 범주화된다. 이러한 형태적-구조적 요소의 범주화는 다양한 문화경관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대성동 마을의 상황, 즉 비무장지대 내의 마을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기능적-활동적 요소는 어려운 자연조건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인간이 적응하고 생활하는 방식(S), 전통 지식과 기술(KS), 전통 기반 마을 운영 체계(M)가 포함된다. 대성동 마을에 적용해보면, 비무장지대 내 특수한 환경에 적응한 농업 방식,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 건축 기술,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의 생활 노하우, 농업 기술, 자원의 공동 관리, 상호 협력 시스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징적-문화적 요소의 5개 범주는 지역 정체성 반영 경관(L), 관습과 전통(CT), 종교와 영성(RS), 사회 조직과 규범(SON), 전통 예술과 문화적 표현(TAE), 등으로 나뉜다. 이들을 통해 특정 경관이 한 사회나 문화 내에서 어떤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며, 집단의 역사적 경험, 기억,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파악 가능하다. 이 요소는 문화경관의 무형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앞선 두 요소들과 함께 문화경관의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범주화 과정은 개별 사례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경관 유산이 지닌 보편적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화경관의 복합적 특성

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보다 체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문화경관 유산 구성요소

| 유산명칭                          | 형태적·구조적 |    |   |    |   |   |   |   |   |   | 기능적·활동적 |   |   | 상징적·문화적 |    |         |     |  |
|-------------------------------|---------|----|---|----|---|---|---|---|---|---|---------|---|---|---------|----|---------|-----|--|
|                               | Ag      | Ar | B | Ft | G | I | N | T | W | S | KS      | M | L | CT      | RS | SO<br>N | TAE |  |
| 잘츠카머구트 지방의 할슈타트 - 다흐슈타인 문화 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쿠르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하우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베가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케르나베 고고 유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소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시리아의 고대 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시리 지역 : 바시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메이만드의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마니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 아사 오아시스, 진화하는 문화 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마치오원 아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우리만/우리마나트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르토베네레, 친퀘 테레와 섬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페르토/노이지들러 호 문화 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르달레라스의 계단식 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날레스 계곡(Viñales Valle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란드 남부 농업 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투 도루 와인 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케이 와인 역사 문화 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도르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 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산명칭                                             | 형태적·구조적 |    |   |    |   |   |   |   |   |   | 기능적·활동적 |   |   | 상징적·문화적 |    |         |     |  |
|--------------------------------------------------|---------|----|---|----|---|---|---|---|---|---|---------|---|---|---------|----|---------|-----|--|
|                                                  | Ag      | Ar | B | Ft | G | I | N | T | W | S | KS      | M | L | CT      | RS | SO<br>N | TAE |  |
|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테킬라<br>생산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보의 포도원 테라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스과 세벤의 중세 농경목축 문<br>화 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리의 문화경관 : 트리 히타 카<br>라나 철학의 표현으로서의 수박<br>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하하니족(紅河哈尼族)의 다랑논<br>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 란게-<br>로에로와 몬페라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파뉴 언덕, 삼페인 하우스와 저<br>장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클리마, 부르고뉴의 테루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데네의 프<br>로세코 언덕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팔레스타인 : 올리브와 포도나무<br>의 땅 - 예루살렘 남부, 바티르의<br>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쿠로니아 모래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밤 지역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료 교역로 - 네게브 지역의 사<br>막 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아르바키르 요새 및 헤브셀 정<br>원 문화경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르츠 산맥(크루슈네호리 산맥)<br>광업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대성동 마을 연구 분석체계와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 구성요소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도출한 세계문화유산 사례들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크게 형태적-구조적 요소, 기능적-활동적 요소, 상징적-문화적 요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대성동 마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문화경관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형태적-구조적 요소 분석이다. 이는 대성동 마을의 공간적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을의 지리적 위치와 공간 구조, 농업 활동의 특성, 건축물의 배치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기능적-활동적 요소 분석이다. 이는 대성동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과 그에 따른 공간 활용 방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생활(S), 전통 지식과 기술(KS), 마을 운영 체계(M) 등의 측면에서 마을의 기능적 특성을 파악한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의 생활 방식, 농업 기술의 적용과 발전, 제한된 자원의 관리 방식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기능적-활동적 요소의 분석은 마을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적응 전략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상징적-문화적 요소 분석이다. 경관은 문화를 이해하는 단서(Lewis, 1979)이며 해석 가능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Taylor, 2015). 이는 문화경관 연구에 중요한 의미이다. 경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 역사적 변천, 사회적 가치 체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성동 마을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다.

문화경관으로서 대성동 마을의 구성요소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이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대성동 마을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의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요소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대성동 마을 문화경관의 총체적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 형태적-구조적 요소

건축물 구조물(B) - 주거 건축물, 마을회관, 공회당(자유의 집), 초등학교, 교회, 군사시설 등  
자연경관과 지형(N) - 동고서저지형, 낮은 구릉지, 사천강, 저수지, 야생 동식물 서식지  
도시와 마을(T) - 제한적인 공간 확장, 계획적 개발, 고려화된 인구  
정원과 공원(G) - 주택 앞 개인정원(화단)

#### 대성동 마을의 공간적 구조와 형태

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공간구조  
건축물 배치  
분단을 나타내는 경계 요소 등

#### 기능적-활동적 요소

극한 환경에서의 생활(S) - 군사적 통제, 주민 점검, 외부 접촉 제한, 제한적인 농업 활동, 문화 활동  
전통 지식과 기술(KS) - 농업 기술, 음식 조리 등의 생활 기술, 군사 관련 지식(대피 요령 등) 등  
마을 운영 체계(M) - 안전에 대한 주민 투표, 군 부대와의 협력(마을 안전, 경관 개선 등) 등

####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생활 방식

경제활동  
일상적 삶  
주민 공동체 등

#### 상징적-문화적 요소

지역 정체성 반영 경관(L) - 전쟁의 상흔, 아산 가족의 아픔, 군사적 긴장, 대북 선전 기능 등  
관습과 전통(CT) - 품앗이, 두레 등, 절기 행사(모내기, 추수 등), 공동체 중심의 생활 관습 등  
종교와 영성(RS) - 교회, 대동궁, 고사, 미신적 신앙  
사회조직과 규범(SON) - 마을 자치 조직(부녀회, 노인회 등), 공동체 규범(상부상조, 질서 유지 등)  
예술과 문화적 표현(TAE) - 구전 전설, 이야기 등

#### 대성동 마을의 문화적 상징과 정체성

‘자유의 마을’로서의 정체성  
분단 경관의 상징성  
전통의 단절  
새로운 문화적 연속성 등

그림 8 대성동 마을 문화경관적 구성요소

## 03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적 특성

### 3.1 대성동 마을의 공간적 구조와 형태

#### •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

대성동 마을이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문화경관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마을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남측 약 400m 지점에 위치하며,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단순한 공간적 특성을 넘어, 마을의 물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특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분계선은 단순한 행정적 경계를 넘어 대성동 마을의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틀로 작용하며, 이는 마을의 배치, 토지 이용 패턴,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 인식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지리적 맥락은 대성동 마을을 단순한 농촌 마을이 아니라, 분단의 현실과 평화에 대한 열망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화경관으로 형성하였다.

대성동 마을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sup>4)</sup>이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전부터 존재하던 생활 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유엔사 규정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에서 대성동 주민의 지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김보윤, 2024).

1953년 7월 27일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대성동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배우자 및 자녀 포함) 및 그들의 후손들로서 유엔사군정위비서장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대성동 거주 및 생계를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이 인가됨. 주민이나 방문객의 대성동 출입은 경계 상황에 따름.

(「한국 정전협정 준수」 3-6 비무장지대 출입, b-(4) 대성동 주민)(강조는 연구자)

대성동 마을이 전쟁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정전협정과 DMZ 설정 이후에도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1958년 신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여러 연구에서 대성동 마을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따라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의 마을을 둔다’라는 정전협정문의 특정 조항에 따라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게 된 마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정전협정에는 이를 명시한 조항이 없음(한모니까, 2023)이 확인되었다. 최근 한모니까(2023), 김보윤(2024)의 연구 등에서 대성동 마을의 실제 존속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혀냈다. 첫째, 1951년 이후 실시된 민간인 소개 과정에서 피난민들이 대성동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둘째, 대성동 주민들의 지속적 거주 요청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이는 비무장지대 내 마을 유지 및 주민들의 거주·출입에 관한 규정이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제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1951년 유엔군에 의한 주민 소개 이후, 해당 주민들이 대성동에 재정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공산괴뢰 측 사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을때 이들 京畿(경기)도 長湍(장단)군 郡內(군내)면 台城(태성)동의 부락민들은 그대로 이부락에 머물고있었다 <중략> 당시 공산측과의 전장(戰場) 경계선(一五五(일오오)마일)에다가 四(사)킬로의 폭으로 「완충지대」(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그 「완충지대」내에는 아무도 들어올수없을뿐만아니라 이「협정」에 조인되던날 현재 그곳에있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갈수없게 규정되어있었다(동아일보, 1958.05.04.)(강조는 연구자)

다양한 기록에서도 확인되듯이, 대성동 마을의 역사적 중요성과 연속성은 단순히 현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역사적 명칭은 18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747~1750년 사이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에 현재 대성동 마을이 위치한 지역이 ‘태성(台城)’이라는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마을 인근에 위치한 臺城(봉화대를 둘러싸고 있는 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태성 부근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한모니까, 2023; 임종업, 2021).

대성동 마을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존재<sup>5)</sup>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 마을의 구조와 형태는 완전히 변화하였다. 대성동 마을이 존속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이곳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접경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상이 융합된 결과물로서, 민북마을 경관은 분단 시대의 긴장과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역사문화유산이며, 한반도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가치를 지닌다(황성한 외, 2023). 특히, 대성동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9 『해동지도』 「장단부」에 표기된 태성  
(출처: 경기문화재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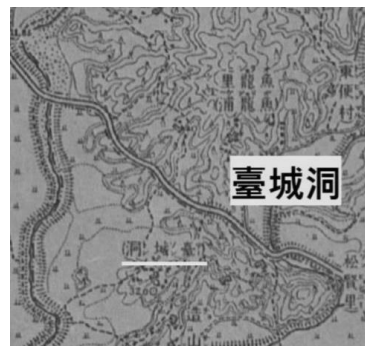


그림 10 1910년대 지형도에 표기된 대성동  
(출처: 한모니까, 2023)

5) 1911년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와 1918년 개성(開城)지도에 표기된 '대성동'은 20세기 초반, 즉 일제 강점기에도 분명히 존재했음을 입증한다(경기문화재단, 2014).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은 대성동 마을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한반도 근대사의 변천 과정 속에서도 그 존재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 • 인위적 간섭이 최소화된 대성동 마을의 자연환경

1960년대부터 민통선 북방지역은 인간의 간섭이 거의 미치지 않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동물공화국’, ‘자연의 대실험실’, ‘신(神)의 농사가 시작된 곳’ 등으로 묘사되어 왔다(조선일보, 1964; 동아일보, 1975).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이 지역의 실제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숲속은 마치 動物共和國(동물공화국)··· 꿩들이 집비둘기처럼 자동차길을 걸음마한다. 지난 겨울 臺城洞(대성동) 사람들은 20마리의 멧돼지를 잡았고 눈이 쌓인날은 하루평균 두마리의 노루를 어김없이 잡았다는 얘기들. 銃(총) 대신에 槍(창)과 개를 데리고 原始狩獵(원시수렵)을 하는 것이다. 옛논은 못이 되어 피라미새끼가 고래같은 잉어로자랐다는 憂說(전설)도 있음직하다(조선일보, 1964.07.26.) (강조는 연구자)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이 지역에서는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번성하며, 주민들은 때때로 원시적 방식으로 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길을 걷는 꿩, 자주 목격되는 멧돼지와 노루의 모습은 이 지역이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적 특성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대성동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친께서 생전에 해주신 말씀인데,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상황상 여기선 잘 못 먹잖아. 마을에 멧돼지, 고라니가 많아서 개네를 그렇게 잡아 드셨대. 진짜 신문에 나온 것처럼 창 들고 다니셨더라고. 8-90년대 시절에 고라니 피를 먹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때는 마을 주민들이 고라니 잡아서 피를 팔아 살림에 보태기도 했어. 나 어렸을 때만해도 동물들 사는 곳에 민간인이 끼어 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기도 많았고 이놈들이 도망도 안가. 동네 형들이랑 장어를 잡았는데 고등학교 때였나. 근데 한 마리가 5키로는 훨씬 넘어. 훼손이 안된 상태여서. 저수지에서 잡았지.” (주민 B의 인터뷰 내용)

“요즘도 고라니나 멧돼지가 마을에 종종 출현해요. 특히 밤에는 더 조심해야 해. 그동안 농사짓는 데 피해도 많이 봤죠. 멧돼지 때문에 올해 농사 다 망쳤잖아. 우리가 야생 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죠. 그런데 아무리 피해를 준다 해도 절대 포획하면 안되요. 여기 규정이 그래요.” (주민 A의 인터뷰)

이러한 주민들의 증언은 대성동 마을이 여전히 풍부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1975년 대성동 마을 인근 판문점과 자유의 다리 일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약 200마리에 불과한 희귀 조류인 두루미의 출현이 확인되었다(동아일보, 1975).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에도 대성동 마을 영농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무리가 목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성동 마을과 그 주변이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1989년에 실시된 민통선 부근 자연자원 조사에서도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지역 내 ‘자연의 보고(寶庫)’로 평가되었다(동아일보, 1989).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입증되었으며, 대성동 마을 인근 장단반도를 통과하는 재두루미와 개리의 이동 경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민통선 지역에서는 2년 연속 100여 마리에 달하는 독수리가 관찰되었으며, 대성동 마을 내에서는 가로 50m, 세로 50m 규모의 대규모 맹꽁이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었다(한겨레, 1999). 이러한 연구와 발견들은 대성동 마을과 그 주변이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 • 대성동 마을 공간 구조와 건축물 배치

대성동 마을은 세 차례의 주요 개발 단계를 거쳐 변화해왔다<sup>6)</sup>. 첫 번째 개발은 1959년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미국 유شم(USOM)<sup>7)</sup>과 한국 보건사회부의 협력 아래 근대적 이상촌 건립을 목표로 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32채의 초가를 모두 근대식 벽돌문화주택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동아일보, 1959).

대성동 마을을 ‘근대화의 이상촌’이자 ‘소독립국’으로……. 당시 북한 지역에서는 소위 ‘억지풍년’을 과시하기 위해 밤마다 밝은 조명을 켜는 선전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사 주도로 이 지역 발전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하고, 50평 규모의 공회당 건립을 준비하였다. 또한, 32채의 초가집을 근대식 벽돌 문화주택으로 개량할 것이며, 동사무실, 의무실, 이발소, 목욕탕, 오락실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될 예정이었다(동아일보, 1959.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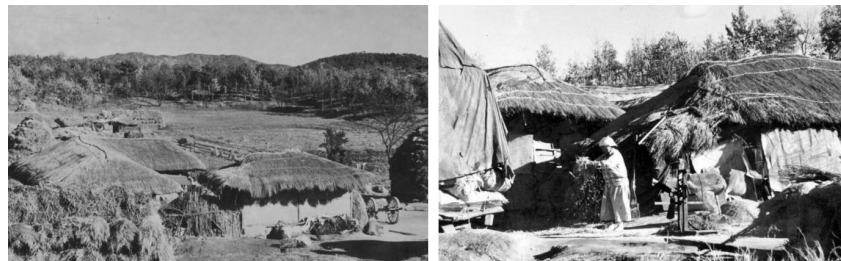


그림 11 1959년 개발 이전의 대성동 마을 전경(1958.12.06. 촬영) ©경향신문사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이 사업은 전후 재건과 농촌 근대화의 초기 시도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제로 완공된 문화주택들은 시공 및 마감의 불량, 단열 문제,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할 정도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조선일보, 1959c; 조선일보, 1960; 동아일보, 1960).

두 번째 주요 개발은 1971~1972년 사이에 진행된 ‘제1차 종합개발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당시 전국적으로 추진되던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행되었으며(조선일보, 1972), 이

6) 대성동 마을의 종합개발 과정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박채린(2022)의 연구를 참조하면 된다.

7) 유شم(USOM)은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의 약자로 ‘한미경제협력위원회’를 지칭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일보 기사(1959b)에는 ‘주한미경제원조단’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당시 중앙행정기관이었던 부흥부가 유شم 측과 합의하여 대성동에 송배전 시설을 갖출 것이라는 언급이 있다.

는 한국 농촌의 전반적인 현대화 흐름과 맞물려 진행된 정책적 개발 사업이었다.

마지막으로,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시행된 ‘제2차 종합개발사업’은 대성동 마을의 독자적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1978년, 제1차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직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대성동 마을의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지 조사 결과 북한 기정동 마을과 비교했을 때 대성동 마을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택, 농경지, 하천 등 전반적인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 현대화, 생산 기반 확충,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다.

제2차 종합개발사업 이후에도 당시 조성된 주택지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일부 공동 이용 시설만 변경되었다. 그러나 대성동 마을은 미수복 지역으로 주민들이 주택이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주민들은 이를 감내하며 생활을 이어왔다.



그림 12 대성동 마을의 개발 과정

30여 년의 긴 기다림 끝에, 2015년 1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성동 마을 방문을 계기로 ‘통일맞이 첫 마을’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대성동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한 외부 마감재 수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성동 마을을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을 향한 희망’의 상징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통일맞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성동 마을의 선전주택으로서 통일된 외관은 사라졌으나, 마을의 건축물들은 여전히 북한을 향해 배치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성동 마을의 건축물 배치와 기능은 마을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마을의 역사적 변천과 현대적 적응 과정을 동시에 반영하는 특징을 지닌다.

#### 초기 근대화 사업 (1959)

- 북한에 "우리의 힘"과 "평화"를 과시

...도합 三十二동의 새집이 이 『자유의마을』 뜰안에 오탁히서서 건너편 공산측 완충지대에서있는 초라한집들에게 『우리의힘』과 『평화』를 빼겨대게된것이다 二十三 公사의 完료를보자 즉각 입주식을 거행하게되었다(조선일보, 1959.12.24.)

#### 제1차 종합개발사업 (1971~1972)

- 모든 주택을 서향(북한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배치
- 서에서 동으로 상승하는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배치
- 북한에서 바라볼 때 규모가 크고 발전된 모습으로 인식 되도록 의도

#### 제2차 종합개발사업 (1979~1983)

- 서쪽(북한과 가까운): 주택지 조성
- 동쪽: 공동이용시설 설치

#### 추가 개발

- 북한과 먼 주택지 뒤편 공지에 분가 세대를 위한 현대식 양옥 건설 시에는 주로 남향으로 배치



그림 13 대성동 마을 주요 개발사업

## 3.2 대성동 마을의 생활 방식

### • 군사지대 옥토에서의 경제활동

대성동 마을은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가구당 약 10만㎡(약 3만 평) 규모의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47가구(190명)의 평균 소득은 연 7천만 원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유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다른 민북마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수치이다(양훈도 외, 2022).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넓은 농경지를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인 농업 생산 시스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성동 마을의 경제적 성과는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기반이 확인될 수 있다. 1960~70년대 언론 보도에서도 이 지역의 높은 농업 생산성과 비옥한 토지에 대한 언급이 발견된다. 경향신문(1968.01.06.)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성동 마을은 상당한 규모의 농지와 가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집이고 라디오와 재봉틀은 있고 2백섬<sup>8)</sup>은 거뜬히 거둘 땅이다. 경작하는땅은 논이 90정보, 밭이 36

8) 섬은 곡물의 분량을 나타내는 계량단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로 한 섬은 용량 180리터를 의미하며, 곡식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벼는 200 kg, 쌀은 144 kg으로 환산된다(농민신문, 2024.05.24.). 기사에서 2백섬에 해당하는 주어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으나 쌀로 적용해봐도 막대한 생산량을 알 수 있다.

정보, 360마리의 소가 있고 개가 450마리, 닭이 2백마리다. 한집에서 40-50마리씩 나누어 농사를 짓는데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손이 바쁠뿐이다(경향신문, 1968.01.06.)(강조는 연구자)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대성동 마을의 풍요로운 농업 환경을 잘 보여준다. 특히, 1975년 11월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대성동 마을 토양의 비옥도를 강조하며 그 우수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20년간 버려둔채 쌓이고 쌓인 유기질이 썩을대로 썩어 비옥하기가 이틀데 없다는  
것. 벼가 알차게 여물어 벼를 찢으면 미곡소출량이 65%나 되고 병충해도 적어 농약을 많이 쓸 필요도 없는  
데다<후략>(동아일보, 1975.11.18.)(강조는 연구자)

한편,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은 오히려 농업 방식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부터 마을에 트랙터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성동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기계화가 가장 잘된 곳”으로 평가(임종업, 2021; 경기문화재단, 2014)받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가구당 넓은 경작지 규모, 벼농사 중심의 농업 체계, 그리고 외부와의 차단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라는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농가는 대규모 경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구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대성동 마을은 인력수급이 안되니까 우리는 시간날 때마다 어떻게하면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했어요. 옛날 방식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기술, 기계를 쫓  
아가려 했지.” (주민 B의 인터뷰)

이러한 변화 과정은 대성동 마을이 초기의 제한적인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고도로 기계화된 효율적인 농업 체계를 구축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적응적 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 군사적 긴장과 일상적 삶의 공존

휴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 내 주민 거주를 허용한 것은 기존 거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위험 지역에 인구를 배치함으로써 휴전 이후 지속된 남북 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다. 분단 경계에 형성된 생활 공간은 일상적인 긴장과 다양한 제약이 공존하는 특성을 지닌다(김보운, 2024).

이러한 맥락에서 대성동 마을은 한국 사회에서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곳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성동과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미군의 생활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무장한 JSA(공동경비구역) 병사들이 연중 상주하며 외부인의 마을 접근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농업 활동에 대한 보안을 감독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 인력과 민간인의 생활 공간이 공존하는 통제 지역으로서의 대성동 마을은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공간이다.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전쟁 재발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긴장은 일상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으로 인해 악몽을 꾸거나 불면증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새롭게 이주해 온 주민들의 경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마을에 처음 시집와서 몇 년동안 북한에 끌려가는 악몽 꾸느라 잠을 못 잤어. 지금이야 적응돼서 괜찮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주민 A의 인터뷰)

“여기 시집왔을 때 집에서 화장실 갈 때도 신랑이 화장실 문턱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 그냥 살아야지..” (주민 C의 인터뷰)

“마을에 대해서 긴장감이란 없어요. 평화로워 보여. 근데 그 평화적인 이면에는 그 적막하고 고요한 그런 긴장감이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정 이슈가 있는 날에는 뉴스를 듣지 않아도 공기 중에 감도는...꼭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날그날의 분위기...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은 긴장감보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주민 B의 인터뷰)

이러한 주민들의 증언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며, 지속적인 긴장 상태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는 분단의 현실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농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대성동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주민들은 군사적 필요성과 생계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분단 상황 속에서 ‘일상’이 가지는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군인들과도 동행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으니 주민들 불만이 많죠. 안그래도 바쁠 때는 일손도 부족한데 군인들도 없어서 마냥 대기해야한다고 하면 주민들끼리 갈등도 생겨. (연구자: 군인 동행 없이 그냥 영농지역으로 나간 주민들은 없었나요?) 왜없겠어. 그럴 때 설득시키느라 애 좀 먹지.” (주민 B의 인터뷰)

대성동 마을에서 군사적 긴장과 주민들의 일상적 삶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농사 활동 속에서 체감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제약된 조건에 적응하며 자신들의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분단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의 적응과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 3.3 대성동 마을의 문화적 상징과 정체성

#### • ‘자유마을’의 이중적 정체성

대성동 마을은 ‘자유마을’이라는 상징적 명칭과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제한된 삶 사이에서 독특한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1959년 대성동 마을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북측의 ‘평화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유마을’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조선일보, 1959b). 이 명칭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대성동 마을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가 되었다. 주민들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 등의 일반적인 국민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별한 법적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지위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일종의 혜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혜택 뒤에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리와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는 현실이 존재한다. “같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형편은 썩 좋지 못하다.”라는 주민 김○○씨<sup>9)</sup>의 말처럼 실제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단지 경작권만 인정받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한다.

또한, ‘자유마을’이라는 명칭과 실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 사이의 괴리도 확인된다. 1954년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에 행정권만을 이양하면서, 대성동을 포함한 수복지구에서는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수 없었다. 특히 ‘자유’를 표방하는 대성동 마을에서 1967년까지도 주민들의 참정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 상징적 가치와 실질적 권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대성동 마을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마을 출입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다. 주민들은 일상적인 외출조차 엄격한 검문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무장지대 출입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이러한 출입 통제는 ‘자유마을’이라는 명칭과 모순되게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출입증 관리 규정은 주민들의 거주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민이라 하더라도 1년에 8개월 이상 대성동에 거주하지 않으면 출입증이 회수되며, 장기 입원이나 학교 진학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대성동에 계속 거주할지, 외부로 거주지를 옮길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임종업, 2021). 이러한 규정은 주민들의

9) 한겨레. (2019.09.28.). ‘한 많은 임진강’ 농민·어민들 변화 바람 속 기대·우려 교차.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11251.html> (접속일: 2024.07.01.)

생활 패턴과 거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성동 마을의 인구 유지 및 공동체 존속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하루 네 차례 파주시 버스(신일여객 93번)가 운행되며, 이 버스는 특히 운전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의 외부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버스 또한 검문소 통과 시 군인들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sup>10)</sup>는 점에서, 여전히 대성동 마을의 특수한 지위와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반영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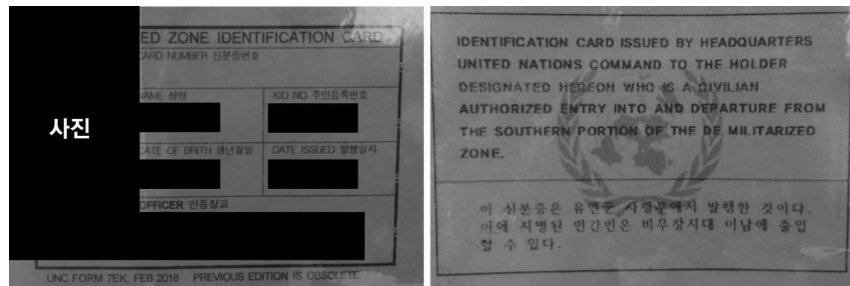


그림 14 대성동 마을 주민의 출입증 (좌: 전면, 우: 후면)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대성동 마을에서 적용되는 또 하나의 특수한 규정이다. 매일 오후 7시부터 가구별 인원 점검이 실시되며,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마을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통제는 주민들의 생활 리듬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상적인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주간에 모든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계절에 따른 작업 시간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농사라는건 새벽에 일하고, 별 뜨거운 오후에 쉬어야 하는데 통행금지 시간 때문에 일 못할 때가 제일 힘들죠.” (주민 B의 인터뷰)

## • 분단 경관의 상징적 의미

대성동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 B씨는 이곳에 남아있는 분단 경관을 대표하는 요소로 태극기 게양대<sup>11)</sup>를 꼽았다. 이 게양대는 마을 내에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

10) [http://www.g1tv.co.kr/tv/?mid=209\\_211\\_227&vodid=10932](http://www.g1tv.co.kr/tv/?mid=209_211_227&vodid=10932) (접속일: 2024.7.1.)

11) 1970년대 대성동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48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는 남북 간 자존심 대결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기정동 마을에 80m 높이의 인공기 게양대를 세웠으며, 이후 양측의 국기 게양대 높이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 12월, 대성동 마을은 85m 높이의 국기 게양대를 세웠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1982년 1월 99.8m로 증축하였다. 이에 북한은 즉각적으로 기정동 마을의 게양대를 165m로 높이며 대응했다. 이러한 국기 게양대 경쟁은 남

조물로 기능하고 있으며,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남북 분단과 체제 경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적 텍스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1970~80년대에 태극기 게양대는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대성동 마을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남한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마을 들어오면 태극기가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조선인민주의 인공기가 보이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거죠.” (주민 B의 인터뷰)



그림 15 대성동 태극기 게양대



그림 16 대성동의 태극기와 기정동의 인공기  
(출처 <https://www.hari.co.kr/ati/politics/defense/950123.html>)

이러한 상징적 요소들은 대성동 마을 전체의 맥락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다. 사실상 대성동 마을 자체가 복합적인 분단 경관을 구현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을 전체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현실을 체현하는 살아있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마을의 구조, 주민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마을의 존재 자체가 분단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이를 상징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분단 경관’은 단순한 지리적 특성을 넘어, 정치적·문화적·심리적 차원에서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대성동 마을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기념행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0년마다 개최되는 마을 기념식은 분단의 역사를 환기시키며, 이 공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 2일 60주년 기념행사, 2022년 8월 3일 7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으며, 8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1953년 8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대성동 마을의 설립이 논의된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대성동이 단순한 농촌 마을을 넘어, 남북 간 긴장과 대화의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북 간 체제 경쟁이 물리적 형태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였다. 대성동에서 게양되는 태극기의 크기는 평일 12m × 8m, 경축일 19m × 12m이며, 이에 맞서 북한의 공화국기는 30m × 15m 크기로 확대되었다. 이는 남북한의 체제 경쟁이 국기 게양대의 높이와 국기의 크기라는 상징적 방식으로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양훈도 외, 2022).

또한, 이러한 기념행사의 존재 자체가 대성동 마을이 단순한 농촌 경관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공간은 남북 간의 긴장과 대화가 공존하는 분단 경관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 분단의 복잡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장소다. 주기적인 기념행사를 통해 이러한 의미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강화되며, 이는 분단 경관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17 60주년 기념식 사진  
(출처: KBS 포토뉴스)



그림 18 70주년 기념식 사진  
(출처: 대성동 마을 주민 제공)

#### • 전통의 단절과 새로운 문화적 연속성 형성

대성동 마을의 문화적 변화는 전통의 단절과 새로운 문화적 연속성 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농업 방식의 변화, 공동체 문화의 쇠퇴, 전통 의례의 소멸은 전통의 단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농업 작물의 변화는 전통 농업의 쇠퇴와 현대화된 농업 기술 도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주민은 이에 대해 “예전에는 콩, 고추, 참깨, 인삼 같은 작물을 많이 재배했는데, 이제는 인력 수급이 어려워 포기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전통 작물 재배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안 한지 벌써 10년도 더 됐죠. 고추 농사 엄청 크게 했었어요. 돈이 좀 됐거든. 근데 힘들어서 이제 안해. 아저씨(남편)가 아프고 나서는 많이 줄었지. 거의 못해.” (주민 A의 인터뷰)

“콩도 많이 심었고 지금도 심고 있지만 그게 일이 많아요.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죠.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력이 수급이 필요한데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삼 같은 것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지.” (주민 B의 인터뷰)

농업과 관련된 공동체적 관행의 변화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공동 창고 운영, 농기계의 공동 구매 및 사용 등 협력적인 농업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개별화된 농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세시풍속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설날이 되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어우러져, 어른들이 계신 집을 방문하며 세배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관습은 마을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전통이 거의 사라졌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마을 이탈, 핵가족화,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촉진된 변화로 볼 수 있다.

“설날에는 마을 애들이 한복입고 모여서 마을 어른들 집집마다 들어가서 세배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애들이 없기도 하고 가족끼리 세배는 하겠지. 우리 손주들은 할머니집 와도 집안에서 핸드폰만 하다 가요. 시대가 변했잖아.” (주민 D의 인터뷰)

전통 의례의 소멸은 공동체 의례의 쇠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행해지던 대동굿과 10월 중에 지내는 가정고사와 같은 전통적인 농경 의례가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대동굿이라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냥 뭐 그냥 찢이고 뭐고 퍼다 밤새고 막 그런 거예요. 나는 그 무당이 무서워서 그냥 잘 안 쳐다보고 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지금은 안 해요. 대동굿은 그냥 딱 그 무당들이 저기 좋은 날 잡아서 1월달엔가 그거 했어요. 겨울에... 지금은 안 해요.” (주민 A의 인터뷰)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대동굿과 같은 전통 의례의 부활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미신적 행위의 복원을 넘어, 역사적 연속성과 문화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자: 다시 대동굿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계신가요?) “그쵸. 이유는 아마도 이런 역사적 연결성과 문화적 전통을 되살리고 싶어서일 거예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게 미신적인 요소는 줄이고,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 B의 인터뷰)

또한, 전통적인 믿음과 관습의 흔적은 여전히 대성동 마을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낭당고개와 관련된 전통은 현대화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상여가 서낭당고개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관습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현재에도 장례 행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의 장례식장 운구차가 마을로 들어올 때는 일반 도로를 이용하지만, 나갈 때는 여전히 외곽 농로를 통해 이동한다. 이는 전통적 관습이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며 지속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성동 마을의 음식 문화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연속성과 변화의 양상이 확인된다. 과거 대성동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개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는 마을의 음식 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주민은 이에 대해 “어릴 때 개성은 마을 어른들 심부

름을 하러 자주 다니던 곳이었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주민 박○○씨 인터뷰)(매일경제, 2023<sup>12)</sup>)”라고 회상했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은 대성동 마을의 음식 문화가 개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 배경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쟁 전에 이쪽 사람들은 개성이랑 가까우니 개성 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저희 조부도 개성 장에 다니셨어요. 아무튼 그러니 대성동 사람들한테는 개성 음식이 익숙했던 거죠. 큰 잔치 때마다 개성 음식들 만들어 먹기도 했고요. 순대 해먹고 (절인) 호박으로 만두 찌먹고, 경단이라고 있죠. 그것도 했었고 옛도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먹거리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이제 그쪽으로는 안하긴 해요. 애호박 만두는 아직도 찌먹어요.” (주민 B의 인터뷰)

이러한 증언은 대성동 마을의 음식 문화가 개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순대, 호박 만두, 경단, 옛 등은 개성에서도 널리 즐겨 먹던 음식이며, 이러한 음식들이 대성동 마을의 일상적인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다양한 먹거리의 등장으로 인해 대성동 마을에서 전통 음식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일부 음식은 여전히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먹으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애호박 만두와 같은 음식은 여전히 대성동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음식 문화를 통해 과거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대성동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대성동 마을은 전통의 단절과 새로운 문화적 연속성이 형성되는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농업 작물의 변화, 공동체적 관행의 쇠퇴, 전통 의례의 소멸은 전통의 단절을 나타내는 반면, 일부 전통적 관습과 문화 요소들은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며 문화적 연속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대성동 마을 공동체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

12) 매일경제. (2023.07.20.) [정전 70년·대성동 이야기] ② "개성까지 걸어 심부름 다녔어". <https://stock.mk.co.kr/news/view/180453> (접속일: 2024.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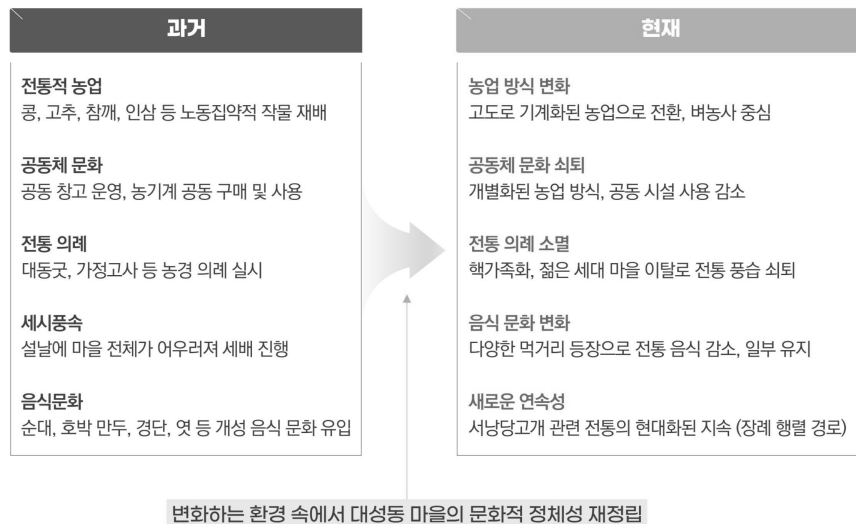


그림 19 대성동 마을의 문화적 정체성

### 3.4 문화경관으로서 대성동 마을의 다층적 유산 속성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은 형태적·구조적, 기능적·활동적, 상징적·문화적 측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마을의 문화경관적 특징은 지리적 입지, 공간 구성, 생활양식, 문화적 상징성과 정체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고유성을 드러낸다.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민간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공간이다. 마을의 구조와 건축물 배치는 대북 선전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전략적 설계의 결과이며,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은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마을 전체의 분단 경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마을에서 농업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주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마을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주민들은 첨단 농업 기계화 시스템을 활용해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이는 군사적 통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적응 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성동의 일상은 군사적 긴장, 농업 활동, 그리고 생활 공간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특수한 양상을 띤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야간 통행금지 등의 제약 속에서도 주민들은 독창적인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분단 상황 속에서도 일반적인 농촌 마을의 생활 터전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은 외부와의 단절된 환경에서 발달한 사회적 적응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분단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대응 방식으로, 전통적 생활 관습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진화해 온 과정을 반영한다.

또한, ‘자유의 마을’이라는 명칭과 주민들이 실제 경험하는 제한된 자유 사이의 간극은 분단 현실과 이데올로기적 표상 간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주민들의 경험과 증언은 분단의 기억을 전달하며, 이는 대성동 마을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은 전통의 단절과 새로운 문화적 연속성이 형성되는 이중적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농업 방식의 변화, 공동체 문화의 진화, 전통 의례의 소멸과 재해석 등은 분단 문화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변화는 대성동 마을이 분단의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해 온 과정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이자, 미래 남북 관계 발전 가능성을 상징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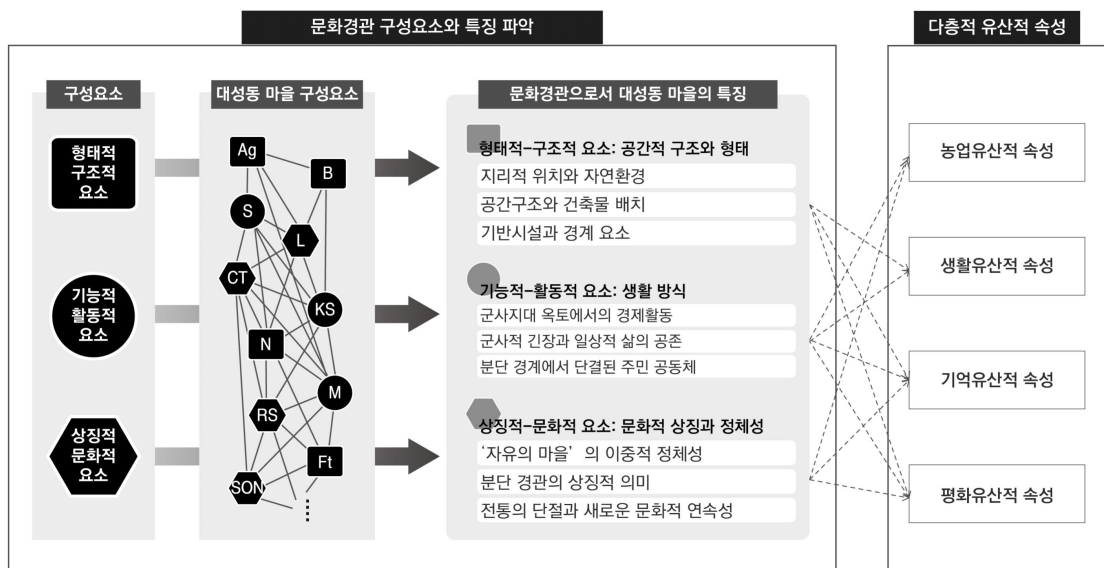


그림 20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적 특성 분석을 통한 유산적 속성 도출

## 04 대성동 마을의 유산적 가치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정태적이고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역동적이고 맥락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는 전쟁 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는 불변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재구성되는 대상(이제이·성종상, 2024)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대성동 마을의 유산적 가치를 해석하였다.

### 4.1 접경지역 농업유산으로서 대성동 마을

#### • 농업 그 이상의 의미

대성동 마을의 농업 경관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현대 농업 기술의 진보가 어우러져 형성된 독특한 문화경관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분단의 역사적 흔적과 주민들의 생존 전략,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마을의 농업 경관은 분단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발전된 경제적 토대와 주민들의 일상, 그리고 적응 전략이 중첩된 다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약 155만 평의 경작지에서 매년 2,250톤의 쌀을 생산하는 높은 생산성은 이 마을 농업의 중요성을 입증한다(임종업, 2021).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로, 대성동이 경기 북부의 핵심 농업지대임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후 지주제가 소멸되면서 대성동 주민들은 농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 지주들과의 소작 관계가 단절(임종업, 2021)된 것이 주민들이 농업 생산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현재 가구당 평균 10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영농의 기반이 되었다.

농경지 확대 과정에서 민정반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미군 불도저를 투입한 개간사업과 제방공사로 인해 정비된 경작지가 늘어났고, 이는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민정반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추가 영농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균형을 도모했다(파주군, 1995).

정부는 대성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농촌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비료와 농약을 지원했으며, 영농 기계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에 힘입어 벼 수확량은 1962년 2,000여 가마에서 1971년 10,000여 가마로 급증했다(파주군, 1995).

이 마을의 농업 발전은 단순히 비옥한 토지나 현대적 농법 도입, 정부 지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적응의 역사이며, 초기 정착민들의 개척 정신과 주민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융합된 산물이다.

결론적으로, 대성동 마을의 농업은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룩한 한국 농촌의 축소판이자, 군사적 긴장과 주민들의 생존 의지가 결합된 독특한 농업 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 • 접경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농업 경관

대성동 마을의 농업 경관은 일반적인 농촌 마을과 달리,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마을이 초기 정착 단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농업 방식과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1957년 조선일보 보도는 당시 대성동 마을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이 형성되던 시기의 특수한 농업 환경과 정착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전략〉 동리에 가축을 많이 키우지 않는 것이 눈에 띄어 물어본즉 소는 농사에 필요해서 부득이 키우지만 다른가축은 피난가게 되면 구찮으니 안 키운다 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다. 피난을 또 가게 될 우려를 느끼는가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보았을 때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알 수 있나요』 하며 근심이 피는 것 같은 태도들이었다(조선일보, 1957.12.20.)(강조는 연구자)

이 기사를 통해 대성동 마을의 초기 경제활동이 주로 농업에 집중되었으며, 안보 상황으로 인해 축산업이 제한적인 규모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마을의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쪽이 논갈이를 하고 있을 때 그놈들은 나팔 소리도 요란히 울려 퍼지며 모내기를 벌써 끝냈었는데... 저놈들이 미쳤나? 대성동 사람들은 그놈의 붉은 깃발을 쫓고 일하는 백전리(白田里)(백전리는 건너편 괴뢰들이 평화촌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 사람들이 미친 것만 같아 보인다(조선일보, 1959a.06.07.)(강조는 연구자)”

접경지역의 특수성은 농업 활동의 양상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성동 마을의 농업 경관이 남북 간 체제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대성동 마을에서의 농업 활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남북 체제 경쟁과 선전의 장으로 기능했다. 모내기의 시기와 속도, 심지어 논에 쫓는 깃발의 색깔과 크기까지도 상대방을 의식한 전략적 행동의 일환이었으며, 이는 농업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대북 선전 수

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마을 공동창고에서 농기계를 보관하며 공동으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각 가구가 개별적으로 대형 영농창고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농업 생산 확대와 농업 방식의 개인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현재 각 가구가 보유한 창고는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트럭 등 개별 농기계를 보관하고, 벼 건조기를 설치할 만큼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인 농촌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성동 마을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인력 수급이 어려워, 모내기과 추수가 집중되는 봄·가을에는 공동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각 가구가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올 수가 없어. 유엔사랑 인민군 사이 정전협정을 맺은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다 안되지. 그 외 나라에서는 농사지으러 오겠어요?” (주민 B의 인터뷰)

1970년대 초, 제1차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창고, 탈곡장, 공동축사, 사일로(silo) 등의 공동 이용 시설은 대성동 마을의 농업 중심적 공간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지주제의 소멸로 인한 농지 소유 구조의 변화는 주민들이 직접 농업 생산의 주체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농지 확장 과정에서 “황무지에 흰 형검 조각을 매단 왜덥싸리 꼬챙이를 꽂아 영역을 표시하면 ‘내 땅’이 되었다.”는 주민 김○○씨의 증언(임종업, 2021)은 대성동 마을의 독특한 토지 이용 방식과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대성동 마을이 농업유산적 가치를 지닌 공간임을 나타내며,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농지를 개척하고 활용해 온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유산으로서의 대성동 마을은 현재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토지 소유권 문제, 고령화, 후계자 부족 문제 등은 마을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땅문서가 없어요. 만일 개방되어 원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면 막막하죠.”(임종업, 2021), “지금은 우리끼리니까 좋은데, 통일되면 솔직히 걱정되. 내 땅이라고 찾아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할지. 나도 죽고 없을텐데. 자식들이 걱정이지.”(주민 D의 인터뷰)는 대성동 마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성동 마을의 농업은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남북 간 체제 경쟁과 선전의 역사적 현장이자 분단과 대치의 최전선을 반영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이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평화에 대한 희망을 내포하는 중요한 유산으로서, 체계적인 유지 및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4.2 분단의 긴장 속 일상이 만든 삶의 터전

### • 분단 상황이 반영된 생활문화

민북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안보 최우선의 접경지역에서 형성된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분단 시대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는 유산이다.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로서 민북마을이 지닌 역사성은, 전쟁의 참혹함을 이겨내면서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며(황성한 외, 2023), 이러한 맥락에서 대성동 마을은 그 자체로 생활유산이라 할 수 있다. 대성동 마을은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생활유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DMZ 내 유일한 민간 거주지로서의 특수한 공간 배치는 생활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조한다.

앞서 언급된 대성동 마을의 독특한 공간 구조는 생활유산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설계된 주택과, 그 속에서 오랜 기간 적응하며 형성된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분단의 역사를 반영하는 유·무형적 생활유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적 실천, 집단적 기억, 그리고 환경 적응 전략까지 포함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대성동 마을의 생활문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요소는 1958년부터 유지되어 온 자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초기에는 오 아무개 대령에 의해 만들어져 강한 통제적 성격을 지녔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주민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 자치 규정은 조선시대 향약과 유사한 형태로 평가되며,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마을에서의 추방 조항까지 존재할 정도로 강한 공동체 운영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이 자치 규정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되며(임종업, 2021), 작전 개념이 포함된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대성동 마을이 단순한 농촌 마을이 아니라, 분단 상황이 깊숙이 내재된 특수한 공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 생활유산의 지속과 변용

대성동 마을의 생활유산은 지속과 변용의 역동적 과정을 거치며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마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되며, 특히 주민들의 소통 방식,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 그리고 마을 축제와 같은 주요 행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생활유산의 변화 과정은 특히 상조 문화에서 두드러진다. 상조 문화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의미가 변해왔다. 과거 대성동 마을의 상조 문화는 마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는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인 상조 문화 역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가정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대성동 마을만의 독특한 상조 문화 일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내 밥과 술값은 내가 낸다’는 전통적 관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주민들은 부조금 외에도 별도의 봉투를 준비하여 상주에게 전달하며, 이는 1967년부터 조직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계(喪契)’의 운영 방식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경기문화재단, 2014). 과거 상계는 마을 구성원이 상을 당했을 때 일정액의 부조와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대성동 마을에서 부조금은 단순히 상주를 돕는 차원을 넘어, 부조하는 사람 자신의 식사와 음료 비용을 충당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과 개인의 책임 의식을 동시에 반영하는 대성동 마을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보여준다.

대성동 마을의 생활유산 중 가장 가시적이고 대중적인 요소로 지역 축제를 들 수 있다. 특히 ‘파주장단콩축제’는 마을의 농업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대표적인 사례다. 2024년 28회를 맞이한 이 축제는 마을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유산의 지속과 변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대성동 마을과 통일촌이 공동으로 축제를 주관했으나, 축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관이 파주시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성동 마을에서 축제가 가지는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성동 마을은 분단 이전 콩의 주산지였던 장단군의 농업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마사토 토양 덕분에 콩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축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경기문화재단, 2014). 비록 축제 장소가 마을 밖으로 옮겨졌지만, 대성동에서 재배된 장단콩의 가치와 명성은 여전히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마을의 농업 문화가 현대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4.3 분단의 상흔과 기억의 공간

##### • 물리적 경관에 새겨진 분단의 흔적

대성동 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은 일반적인 농촌 마을과 유사한 모습을 띠며, 외견상으로는 분단의 현실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이는 뚜렷한 군사시설이나 경계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실제로 주민들의 일상과 외부인의 시각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확인된다.

그러나 마을 전체의 경관과는 대조적으로, 개별 주택의 건축적 요소들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로 기능하고 있다.

주택의 기본 구조에서부터 분단의 흔적이 드러난다. 현재 대성동 마을의 주택은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시행된 제2차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이 개발 사업은 마을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분단국가의 현실을 물리적 환경에 새겨 넣은 과정이었다. 특히, 건물의 높이와 배치는 분단 상황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닌, 분단의 현실이 건축 공간에 직접적으로 투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개발 과정에서 서구식 전원주택을 연상시키는 11가지 유형의 주택 설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박채린, 2022).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 개선이 아니라, 대성동 마을을 이데올로기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북한을 향한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택 외관을 설계함으로써, 대성동 마을은 남한의 체제 우위를 과시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다양한 주택 유형 중에서도 특히 H형 주택은 대성동 마을의 이데올로기적 경쟁 맥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H형 주택은 2층짜리 2가구 연립주택으로, 동일한 평면이 좌우 반전되어 붙어 있는 구조이다. 두 가구가 합쳐진 상태로 보면 정면 4칸, 측면 2칸의 형태를 가지며, 측면보다 정면과 배면이 긴 장방형 평면을 형성한다.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주택은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이도록 설계되었으며, 두 가구가 하나의 입면을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건축적 선택이 아니라, 분단 상황에서 체제 경쟁을 염두에 둔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물리적 경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 정면에 적용된 서구적 건축 요소들 역시 분단 상황을 강하게 의식한 결과물이다. 캐노피, 베란다, 포치 등의 설치는 단순한 공간적 기능을 넘어, 입체감을 부여하여 서구화된 남한의 이미지를 북한에 과시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 창호 대신 현대적 디자인의 창호를 채택한 것은 남한의 근대화와 발전을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된다(박채린, 2022). 정면 외벽에 벽돌 모양 타일을 적용한 것은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처럼 대성동 마을의 주택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남북한 체제 경쟁의 상징적 도



그림 21 H형 주택의 정면과 측면



그림 22 H형 주택의 평면도  
(출처: 박채린, 2022)

구로 활용된 건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 •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전승되는 분단의 기억

대성동 마을의 분단 경험은 물리적 경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주민들의 기억과 구술을 통해 생생하게 전승되고 있다. 주민들에게 분단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현재진행형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구술 증언은 공식 기록에서 간과되기 쉬운 일상적 차원의 분단 경험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대성동 마을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고 없이 실시되는 비상훈련에 대한 주민 D의 증언은 분단 상황의 긴장감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짜 전쟁났구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에게 전쟁의 가능성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대성동 마을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긴장과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장소임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대성동 마을의 분단 경험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마을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 당시 초창기에는 군인 애들이 미리 알려주고 우리 대피훈련 했거든. 근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앵~한 거야. 자다 말고 우리들이 밤에 비상이라고 군인이 막 스피커로 그래가지고 난 그때 2층에서 애들 아빠랑 자다가 다칠 뻔했어. 그러니까 나가야 되잖아 거기를 빨리.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진짜 되게 놀랐어. 비상 훈련하는데 미리 군인이 알려줘. 닳새가 며칠 전에 언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대로 하는데 그때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전쟁났구나. 그때 아주 생동감이. 아주 흔났어. 사무실 마당에서 트럭타고 문산에 나갔었지. 그때는 진짜 예고도 없이 했어요. 어우 나 그때는 진짜 진짜인 줄 알고 뭐 잡히지가 않더라고. 전쟁 나니까는 이러니 그런 생각하니깐 발도 잘 안 디터져 몸이 굳어서. 진짜 전쟁 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훈련한 거야.” (주민 D의 인터뷰)

주민 A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한 회고는 분단의 현실이 개인의 삶 깊숙이 침투하여 일상을 제약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아들의 돌잔치라는 개인적이고 축하할 만한 행사조차도 분단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분단의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그러니까 도끼 만행 사건도 우리 미국에 간 애. 그때 이제 돌이예요. 돌이여서 첫 아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손님을 많이 신청을 해서요. 그거 하려면 돌잔치하려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대성동은 들어오려면. 서울에서도 다 초대 했는데 그 만행 사건 때문에 못했죠.” (주민 A의 인터뷰)

이러한 맥락에서 대성동 마을은 분단의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기억의 장소’로 해석될 수 있다. 특정한 장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과

거의 흔적을 현재에 드러내고 그 역사적 연속성을 가능하게 한다(Assmann, 2009). 전쟁묘 지나 추모 시설과 같은 기념물이 전쟁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듯(정호기, 2008), 대성동 마을 역시 분단의 역사를 체현하고 그 기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살아있는 기념물로 볼 수 있다. 즉,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장소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 4.4 평화와 화해의 상징적 공간

##### • 평화의 상징으로서 대성동 마을의 의미

DMZ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완충지대로,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분쟁 지역 내에서 평화 공존이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대성동 마을은 전쟁유산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평화유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58년 12월 6일자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대성동 마을을 ‘한국의 별천지(別天地)’라고 묘사하며, “동화 속 평화로운 군주국(君主國)과도 같은 마을”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외부의 ‘평화로운’ 묘사와는 달리, 실제 주민들의 일상은 전쟁 재발에 대한 상시적인 불안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대성동 마을은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과 제한된 발전으로 인해 낙후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나라에 버림받은 듯하여 언짢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경향신문, 1958.12.6.).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성격과 의미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1959년 ‘자유마을’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면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체제 선전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마을 발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1970~80년대에 걸쳐 세 차례의 대규모 종합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대성동 마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경기문화재단, 2014). 그러나 주택 개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1980년대 지어진 주택에서 30년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구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 왔다. 별도의 출입구를 신설하거나, 가족 구성 변화에 맞춰 내부 공간을 재구성하고 증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활 공간을 조정했다. 또한, 주택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을 떠난 세대의 빈집으로 이주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임종업, 2021). 이처럼 대성동 마을의 평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 실천과 적응 과정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결국, 주민들의 능

동적이고 유연한 적응 과정은 대성동 마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살아있는 평화유산’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 • 남북 교류와 협력의 잠재적 거점

대성동 마을은 한반도 분단의 복잡성과 그 영향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2021년 파주시민들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파주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대성동 마을이 지닌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이 단순히 정치적·군사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다.

중요한 점은 이 마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대성동 마을을 남북 교류와 협력의 잠재적 거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 분야는 대성동 마을의 상징성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평원벼’의 개발과 재배는 대성동 마을의 평화유산을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평화미(미)소’라는 브랜드로 상품화된 평원벼는 ‘평화를 원하는 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남한의 진부19호와 북한의 삼지연4호를 교배하여 개발한 국내 최초의 남북 교배품종으로 남북 협력을 농업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농업적 노력은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파주시는 평원벼로 생산된 쌀을 ‘평화미(미)소’라는 브랜드로 상품화했으며, 파주시 농협과 협력해 생산된 추석용 햅쌀이 시장에서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매일일보, 2024<sup>13)</sup>). 이는 평화 구축의 실천적 의미를 지닌 경제적 성과로, 대성동 마을의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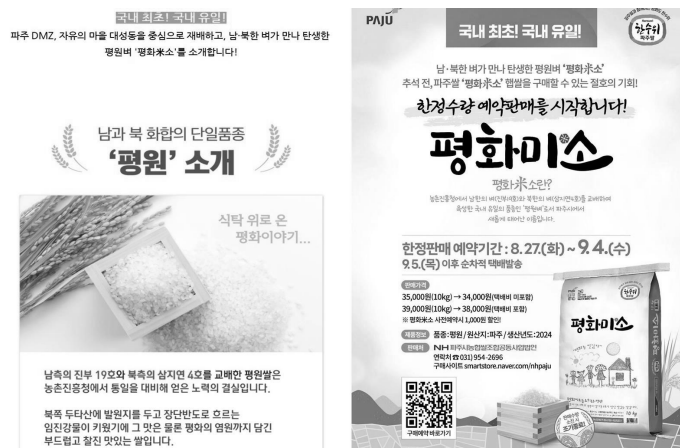


그림 23 평원벼 ‘평화미소’ 소개글 및 홍보 포스터  
(출처: NH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스마트스토어)

13) 매일일보. (2024.09.10.). 파주시, 올 추석에 선보인 햅쌀 평화미(米)소(평원벼) 완판.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536> (접속일: 2024.09.10.)

결론적으로, 대성동 마을의 사례는 분단의 상징적 공간을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향후 남북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채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대성동 마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잠재적 거점으로써 그 가치가 매우 크다.

## 05 대성동 마을 세계유산 등재 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대성동 마을이 단일한 차원의 유산이 아닌, 농업유산, 생활유산, 기억유산, 평화유산 등의 가치가 복합적으로 중첩된 유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마을이 지닌 다층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마을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대성동 마을의 복합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성동 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라는 관점에서 그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 거주 마을인 대성동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검토하고, 문화경관의 유형을 분석하여 대성동 마을의 등재 가능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5.1 세계유산 등재 기준 검토

앞서 논의한 대성동 마을의 복합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대성동 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등재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성동 마을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남북 공동 등재의 관점에서 DMZ 지역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준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의 독창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대성동 마을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공유하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이다. 판문점 및 북측의 기정동 마을과 함

게 형성된 독특한 경관은 단순한 정주지가 아닌 분단 상황에서 지속된 생활유산의 증거이다. 분단 이후 유일하게 민간이 거주하는 비무장지대 내 마을로서 남북한 대립의 역사와 그 속에서 유지된 공동체 문화와 생활문화를 전승하는 대성동 마을은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 대립의 물리적 증거이자 현대 분단국가의 경관에서 독보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기준 (iv): 인류 역사의 특정 단계나 여러 단계를 예증하는 건축 양식, 건축 또는 기술의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

대성동 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 대치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문화경관으로, 극한적 상황에서의 인간 정주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고, 이 지역의 발전과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특수한 공간구성을 갖추고 있다. 군사적 관리와 일상적 삶의 공존 모델이자 근현대사의 중요한 단계를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기준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나 삶의 전통, 사상, 믿음,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적 또는 실체적으로 연관된 유산

대성동 마을은 남북한 대립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와 깊이 연관된 장소이며, 이는 비무장지대를 남북 공동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곳은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장소이다. 남북 관계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이라는 상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세계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OUV)를 충족할 수 있다.

[표 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2024년 12월 기준)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평가를 위한 10대 통합 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하는가.</li> <li>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특정 문화 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경관 디자인의 발전에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가.</li> <li>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의 독창적이거나 특출한 증거가 되는가.</li> <li>iv. 인류 역사의 특정 단계나 여러 단계를 예증하는 건축 양식, 건축 또는 기술의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인가.</li> <li>v. 특정 문화(또는 여러 문화)를 대변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인해 취약해질 수 있는)을 나타내는 전통적 취락, 토지 이용 또는 해양 이용의 탁월한 사례인가.</li> <li>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나 삶의 전통, 사상, 믿음,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적 또는 실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세계유산위원회는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빼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는가.</li> <li>viii. 지형 발달의 지질학적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또는 지형학적·자연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생명의 기록을 포함해 지구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입증하는 탁월한 사례인가.</li> <li>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물 및 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및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인가.</li> <li>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면서도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를 포함해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를 포함하는가.</li> </ul> |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https://whc.unesco.org/en/criteria/>, 검색일: 2024.12.05).

## 5.2 문화경관 유형 적용

유네스코는 문화경관을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관,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화석경관, 지속 경관), 연상적 문화경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대성동 마을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 진화, 전쟁 이후 지속적 거주역의 역사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생활양식, DMZ 내 유일한 정주공간으로서의 지속성 등의 특성으로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과 연상적 문화경관의 특성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 연상적 문화경관

대성동 마을은 물리적 경관보다 그 장소가 지닌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중요한 유산이다. 분단과 평화, 남북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는 비무장 지대 전체와 연계하여 남북 공동 등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중 지속경관

대성동 마을은 전통적인 농경 활동과 현대적 군사적, 정치적 요소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해 온 거주지의 사례로서 비무장지대 전체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5.3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대성동 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단독 등재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등재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 • 남북 공동 연구 및 협력 기반 구축

- 대성동 마을과 북측 기정동 마을, 비무장지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공동 학술 연구 수행
- 남북한 공동 조사 및 문헌 연구를 통해 공동의 문화경관으로서 DMZ의 가치 확립

### • 유네스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 및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유네스코 및 ICOMOS 등재 자문을 통해 DMZ 문화경관의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입증

• 단계적 등재 전략 마련

- 현시점에서 가능한 조사, 연구 위주의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대내외적 상황 전개 및 그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에 맞추어 세계유산 등재 준비

- ① 대성동 마을 개별 연구 및 국내 제도적 기반 마련
- ② 비무장지대 내 타 유산(북측 기정동, 판문점 등)과 연계한 유산 범위 확장으로 공동조사 및 연구 준비
- ③ 남북 공동 유산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 → 유네스코 잠정목록(Tentative List) 등재 추진
- ④ 최종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성동 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경관적 특성과 유네스코 등재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 공동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대성동 마을을 비무장지대 내 문화유산적 가치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 공동 연구, 국제사회 협력, 단계적 등재 전략을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반영하는 세계유산 등재 사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림 24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 06 결론

본 연구는 대성동 마을을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평가하며, 남북공동 세계유산 등재 기반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성동 마을은 접경지역에서 형성된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공간적 맥락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문화경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Antrop(2000)의 경관 분석틀을 적용하여 형태적-구조적, 기능적-활동적, 상징적-문화적 요소로 구분하여 대성동의 문화경관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대성동 마을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경계를 상징하는 장소이자, 주민들의 삶과 전통이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문화경관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성동 마을의 문화경관적 가치는 기존의 세계유산 등재 사례와 비교할 때 독창적인 특징을 지닌다. ① 공동체 문화가 반영된 주거 유산 또는 전통 마을 문화경관, ② 전통 마을의 형태이면서 전통적 농경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문화경관, ③ 전통 마을이 국경 지역 또는 분쟁지역에 위치하거나, 중대한 역사적·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문화경관의 세 가지 기준을 정하여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대성동 마을은 전쟁 및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독창적인 공간문화 및 생활문화를 전승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의 흔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삶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대성동 마을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및 자료 확보가 필요하나, 군사적 통제 속에서도 지속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농업경관은 유산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경관으로서 대성동 마을의 유산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남북 공동 관리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문화경관 연구가 주로 전통적 농경경관이나 역사적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군사적 분쟁 및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형성된 문화경관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지역에 대한 연구와 보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성동 마을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및 분쟁 지역에서의 문화경관 보전과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보전 전략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Ⅰ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2014).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경기도·파주시·경기문화재단연구원.
- 김상민, 김현호, 하혜수. (2016). 대성동 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특성 분석 :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의 관점에서.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28(4), 155-184.
- 김유지, 김서연, 박영준, 이경민, 김성우. (2015). 대성동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 커뮤니티 서비스 디자인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6(6), 113-124.
- 금보운. (2024). 분단국가의 인구 동원과 비무장지대 관리 (1953~1963년) : 대성동 생활 개선 사업과 한국 정부·미국의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204), 67-107.
- 김응섭. (1989). 판문점과 자유의 마을 대성동. 북한, 211, 64-73.
- 노현균. (2020).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가치와 경기도의 역할,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DMZ FORUM 2020 Proceedings pp.130-135.
- 박채린. (2022). 1950~1980년대 한반도 비무장지대 안 대성동마을 개발의 의미와 영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한술. (2022). DMZ 민북마을 경관의 형성과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한술, 윤승용, 조경진. (2020).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DMZ 접경지역 민북마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철원군 이길리와 유곡리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21(6), 89-104.
- 서준원, 조경진. (2021). 문화경관으로서의 DMZ 철원 민북마을 일상경관 읽기 - 주민 심층 인터뷰 및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한국경관학회지, 13(2), 1-23.
- 신나리. (2023). DMZ내 대성동 거주 여성의 젠더적 공간 경험 연구 : 생애구술사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훈도, 정인숙, 안영욱, 한웅. (2022). 경기도 접경지역 이야기, 경기그레이트북스 34, 경기문화재단.
- 이제이, 성종상. (2024). 세계유산 사례를 통해 본 전쟁 유산의 의미 해석,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57(3), 204-224.
- 임종업. (2021). 대성동 DMZ의 숨겨진 마을. 파주: 소동.
- 정근식, 한모니까, 강인화, 전원근.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정호기. (2008). 전쟁 상흔의 치유 공간에 대한 시선의 전환 - 한국에서의 전쟁 기념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3호, 183-212.
- 파주군. (1995). 파주군지: 현대사회 下.
- 한모니까. (2020). 1950년대~1960년대 민간인통제선(CCL)의 변화와 '민북(民北)마을'의 형성. 북한연구학회보, 24(1), 59-92.
- 한모니까. (2023). DMZ의 역사 :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파주: 돌베개.
- 황성한, 장광열, 남궁승필. (2023). 주요 분단문화로서 민북마을에 대한 인식 및 보전 필요성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9(4), 415-427.

- Antrop, M. (2000). Background concepts for integrated landscape analysis.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ment*, 77(1-2), 17-28.
- Lewis, P. F, 1979, 'Axioms for Reading the Landscape. Some Guides to the American Scene' 11-32 in Meinig, D.W., ed.
- Assmann, A.(2009) *Erinnerungsraume :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변학수채연숙 역(2011),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 Taylor, K. (2015) 'Cities as Cultural landscapes' in *Reconnecting the City: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Approach and the Future of Urban Heritage* (eds F Bandarin & R Van Oers), pp. 179-202,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5.

## [신문기사]

이하 신문기사는 모두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에서 발췌.

경향신문. (1968.01.06.) 외로운韓國人(한국인)들

동아일보. (1958.05.04.) 選舉(선거)없는마을 中立地帶(중립지대)루포

동아일보. (1959.11.13.) 망치소리 요란한 자유의 마을 갈대만이 넘실대는 휴전선상의 대성동.

동아일보. (1960.03.08.) 벌새벽(벽)이터지고

동아일보. (1975.11.18.) 國土診斷(국토진단) (16) 分斷悲劇(분단비극)이 낳은 野生動植物(야생동식물)의 樂園(낙원) 民統線北方(민통선북방)

동아일보. (1989.03.23.) 휴전선 일대는 자연자원寶庫(보고) 「보존지역」설정키로

조선일보. (1957.12.20.) 緩衝地帶(완충지대)의生態(생태)

조선일보. (1959a.06.07.) 非武裝地帶(비무장지대)에도 모내기 "東洋(동양)의西伯林(서백림)?"大城洞(대성동)을 가다

조선일보. (1959b.11.13.) 이름바꿔「自由(자유)의 마을」로 「非武裝(비무장)」철새만 모여들고

조선일보. (1959c.12.24.) 아담한住宅(주택)마련 臺城洞(대성동)『自由(자유)의 마을』에

조선일보. (1960.03.13.) 物論(물론)일으킨 臺城洞住宅(대성동주택)

조선일보. (1964.07.26.) 伏中(복중)의「싸늘한平和(평화)」위를가다 休戰(휴전)11年(연)…「카메라」로 더듬는 오늘의「緩衝地帶(완충지대)」

조선일보. (1972.12.22.) 非武裝(비무장)지대 臺城洞(대성동)「自由(자유)의 마을」示範農村(시범농촌) 새마을로

한겨레. (1999.05.26.) 민통선,남북 환경교류 출발선